

대구지역 작곡활동의 흐름

孫 泰 龍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1. 머리말 : 대구지역 작곡의 전개과정
2. 1950-60년대 작곡활동
 -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3. 1970년대 작곡활동
 -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4. 1980년대 이후 작곡활동
 -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5. 맺는말 : 작곡활동의 새로운 이해

1. 머리말 : 대구지역 작곡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의 서양음악의 유입은 기독교 의식 및 전도의 일환으로 이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근대사 이후 근대화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서양음악은 주로 선교사 및 신부들에 의하여 전도된 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서울과 타지역에 공통적으로 같이나 대구가 다른 지역에 견주어 보아서 대표적이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천주교의 성당과 기독교의 교회가 대구에 들어와 종교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양음악 분야 중 작곡활동은 한국양악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작곡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악곡을 만들어 음악문화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겨진 기록을 통하여 대구에서 벌어졌던

작곡활동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작품은 물론, 작곡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음악사 분야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곡활동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동기에서 시작한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에서 이루어진 작곡활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벌어졌고, 지금까지 발달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 대구의 음악발전에 디딤돌을 만들고자 하며, 특히 대구의 작곡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본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편적인 연구내용과 연주 팜플렛 그리고 신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특히 1945년부터 1957년까지의 작곡활동에 관한 내용은 『영남일보』의 음악기사를 참조할 것이며,¹⁾ 1955년 이후의 작곡활동에 관해서는 『매일신문』을 이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의 음악기사를 색인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거나,²⁾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구지역 최초의 작곡은 1910년대 말에 박태원이 작사·작곡한 “이별가,” “내사랑” 등이며,³⁾ 1920년에 박태준이 작곡한 여러 동요곡들을 들 수 있다.⁴⁾ 당시 박태원이 작사·작곡한 곡의 선율은 현재 알 수 없으며 그 가사만 전해지고 있고, 박태준이 작곡한 동요곡으로는 “가을”(박목월 시), “가을밤”(이태선 시), “고기잡이 할아버지”(윤석중 시), “골목길”(김영일 시), “꼬부랑 둔덕”(서덕출 시), “꽃밭”(장효섭 시), “꽃봉투”(윤석중 시), “나

¹⁾ 孫泰龍, “『嶺南日報』音樂記事 索引: 1945년-1957년,” 『郷土文化』(대구: 郷土文化研究會, 1995), 第8輯에 타고 중임.

²⁾ 孫泰龍, “『每日新聞』音樂記事 索引: 1955-1964년,” 『音樂文化研究』(河陽: 曉星女子大學校 音樂文化研究所, 1993), 第2輯, 29-155쪽;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65-1969년』(대구: 中文出版社, 1994);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70-1974(1), 『예술평론』(대구: 대구예술평론가협회, 1992), 장간호, 225-305쪽;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70-1974(2), 『예술평론』(1994), 제7호(가을호), 220-54쪽;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70-1974(3), 『예술평론』(1994), 제8호(겨울호), 231-71쪽;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75-1979년, 『郷土文化』(1992), 第7輯, 203-324쪽; 『매일신문』음악기사 제목: 1955년 8월-1989년, 『한국음악의 인식과 비평』(대구: 중문출판사, 1993), 184-325쪽; 『每日新聞 音樂記事 索引: 1980년-1984년』(대구: 韓國音樂學研究會, 1995); “大邱市立交響樂團 定期演奏會 演奏目錄,” 『大邱教育音樂』(대구: 대구직할시교육음악협회, 1990), 장간호, 96-123쪽;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색인: 제1회-제208회,” 『예술평론』(1993), 제4호, 275-305쪽 참조.

³⁾ 박태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면, 손태룡, “박태원, 대구지역 혼성합창의 창시자,” 『한국음악사의 큰 별』(대구: 중문출판사, 1994), 79-94쪽 참조.

⁴⁾ 손태룡, “박태준, 한국합창운동의 선구자,” 『한국음악사의 큰 별』, 116-17쪽 참조.

비와 잠자리”(윤석중 시), “내 방패 연”(윤석중 시), “눈꽃”(김영일 시), “눈이 오는 밤”(홍은순 시), “물새”(윤석중 시), “우리나라 기”(윤석중 시) 등이 있다. 아울러 이후 서양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동요 및 군가 성격의 곡을 작곡했음이 드러나고 있어 음악애호가도 작곡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초창기 대구지역에서 작곡을 한 사람은 박태원·박태준 형제라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작품은 전문적인 악곡이라기보다 간단한 가곡의 스타일이나 동요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인 바, 전문적인 작곡활동의 시기는 해방 이후가 된다. 그 대표적인 작곡활동은 1948년에 조직된 <전시작곡가협회> 주관의 1951년 윤용하작곡발표회와 대구미공보원에서 열린 김진균작곡발표회가 그것이다. 이후 대구지역의 작곡활동은 밋밋하다가 7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1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작곡활동에 관해 먼저 살펴보았으므로, 이어서 1950-60년대의 작곡활동, 70년대의 작곡활동,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작곡활동 순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대구음악사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음악사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구작곡사 연구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각 음악장르와의 관계도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음악활동이 서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에서도 음악활동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2. 1950-60년대 작곡활동

전문적인 작곡의 활동시기는 해방 이후가 된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작곡활동은 1948년에 조직된 <전시작곡가협회> 주관의 윤용하작곡발표회가 전문적인 시발점이다. 윤용하는 1951년 8월 3일에 대구국민학교 강당에서 “동백꽃”을 비롯한 가곡을 위주로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3개월 후인 11월 3일에는 김진균의 “산수도”를 비롯한 작곡발표회가 대구미공보원에서 개최된 바 있다.⁵⁾ 윤용하의 작곡발표는 당시 6·25전쟁 중이었으므로 전문음악인들이 대구에 모였기 때문에 이뤄졌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김진균작곡발표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대구사람으로서의 공식적이며 전문적인 작곡발표회라는 점이고, 또한 이러한 작곡발표회를 통해 대구지역에 전문적인 작곡분야의 뿌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⁵⁾ 손태룡, “이집회, 염원·사랑·생명을 위한 바리톤,” 『한국음악사의 큰 별』, 215쪽.

해방 이후 특히 6·25전쟁 전후에는 전문음악인들이 대구에 대거 모여들어 음악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한국음악활동의 중심지가 대구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구가 음악인들의 활동무대가 되어주었으나, 다른 연주문화에 비해 작곡활동은 미약하였다. 한편 6·25전쟁 때 대한심포니가 대구에서 창립되었을 때, 박재강의 교향적 합창곡 「농악의 인상」을 초연한 바 있다.⁶⁾ 평양음악대학을 다닌 바 있는 박재강은 <대구음악연구소>를 이끌어가면서 작곡에 열중한 대구의 초기 전문작곡가였고, 그때 연주된 교향적 합창 「농악의 인상」은 교향곡의 한 악장이었다.

성악가 권태호는 독일가곡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군가나 동요들을 많이 작곡하였고,⁷⁾ 문학가 김성도는 “어린음악대”란 동요를 남겼다. 대구에서 예육회·향음회·향성회·대구미국문화원의 후원모임 등이 50년대 전후로 레코드감상회를 시작하여, 연주자들의 무대활동이 활발해지는 70년대 후반까지 지속하여 왔던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마추어적 감상모임에서 서양음악의 연주와 작품활동에 적합한 환경으로 키워나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대구에서 순수한 음악가단체인 <대구음악연구회>가 결성된 시기는 1952년이었다. <대구음악연구회>는 1952년 5월 이점회를 회장으로 피선하면서 16명의 음악인들에 의해 발족되었다. 같은 해 7월 23일 제1회 발표회에서 김진균의 가곡이 불러졌지만 주요 관심은 연주였다. 이 연구회는 음악발표회를 1953년 5월 30일에 제3회까지 지속하였으나 좀더 문호개방을 하도록 발전적 해체가 이루어지고, 1956년 1월 8일에 새로운 모임인 <대구음악가협회>로 확대되었다.⁸⁾ <대구음악가협회>는 회장 하대웅, 부회장 이점희, 간사 이삼근으로 하여 회원 16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협회 주축로 정기연주회를 열어 음악인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대구음악가협회>도 역시 연주활동에만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 단체들 이외에도 1953년 <대구교육음악협회>와 <경북예술단체연합회> 산하 <경북음악가협회>가 1959년에 구성되었으며, 1960년 2월 3일에 <영화

⁶⁾ 孫泰龍, “西洋音樂” 『大邱市史』(대구: 大邱廣域市, 1995), 第5卷(文化), 354쪽 참조.

⁷⁾ 손태룡, “권태호, 개화기 이후 현대음악의 뿌리,” 『한국음악사의 큰 별』, 155-205쪽 참조.

⁸⁾ 손태룡, “이점희, 염원·사랑·생명을 위한 바리톤,” 『한국음악사의 큰 별』, 216-17쪽 참조.

음악작곡가협회>도 창립되었으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전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 산하에 <한국음악가협회 경북지부>가 1962년 2월 18일 대구에서 결성되고나서 좀더 획일적인 체제아래에서 음악활동을 하게 되었다.⁹⁾ 예총 산하의 <음협 경북지부>도 역시 정기연주회를 주관하였고, 그 외에 음악문화를 비평하거나 교육적 목적을 가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64년에 개최된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이홍렬의 “어머님 마음” 외 4곡의 가곡이 연주되었고,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하대웅의 “진달래”가 연주되었다. 정기연주회가 제3회에 이르기까지는 역시 가곡의 연주활동에만 중심을 두었다. 1966년 12월 19일에 K.G. Hall에서 열렸던 제4회의 음협정기연주회인 송년음악회는 박준상의 현악4중주곡 「희유곡」과 이상희의 가곡 “성모송,” 임우상의 가곡 “한국의 달” 등이 연주되어 향토작곡가의 작품연주를 주로 한 획기적인 무대가 되었다.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1951년에 윤용하와 김진균의 작곡발표회가 열린 이후 개인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품연주는 60년대 와서도 드물게 행해졌다. 첫 작품활동은 60년대 후반에 와서야 있었다. 그 하나가 1967년에 효성여대 대강당에서 있었던 하대웅의 작품발표회와 1968년 녹향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김진균의 가곡발표회가 그것이다. 병석에서 지은 소월의 시 등 총 13곡으로 하대웅의 작곡발표회가 효대동창회 주선으로 1967년 11월 4일 효대강당에서 매일신문사와 효대학생회의 후원과 이옥향·홍춘선, 반주에 김진숙·이인숙, 효대합창단이 출연하여 이루어졌다.¹⁰⁾ 그리고 김진균가곡발표회가 1968년 10월 1일에 <예총 경북지부> 주최와 계명대학교의 후원으로 녹향음악감상실에서 메조소프라노 신경구, 테너 홍춘선, 그리고 신회원의 피아노반주로 이루어졌으며,¹¹⁾ 석사학위를 위한 임우상작곡발표회가 1969년 11월 27일 계명대 강당에서 각각 열렸다.¹²⁾

한편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인 한·미현대음악의 밤이 1965년 11월 27일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렸는데, 박준상 곡인 「교향곡 제1번」, 제임스 웨이드의 「高聲과 관현악을 위한 세 개의 노래」와 「전쟁고아」, 그리고 이상근

⁹⁾ 『大邱藝術三十年史』(대구 : 한국예총대구시지회, 1993), 18쪽 참조.

¹⁰⁾ 『매일신문』, 1967년 11월 3일자 참조.

¹¹⁾ 『매일신문』, 1969년 9월 27일자 참조. 김진균의 작곡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손태룡, “김진균, 한국예술가곡과 음악학의 선구자,” 『한국음악사의 큰 별』, 232-68쪽 참조.

¹²⁾ 『매일신문』, 1969년 11월 26일자 참조.

의 「금관악기와 현악합주를 위한 희유곡」 등이 연주되었다. 특히 박준상은 한·미현대음악의 밤에서 「교향곡 제1번」을 작곡·지휘하여 화려한 데뷔의 각광을 받았는데, 이 곡이 그해 12월 5일 KBS전파를 타고 연주되어 역사적 공연이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작곡가들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름으로 작품발표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었다. 특히 악기편성이 큰 작품을 개인으로 발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당시의 현실에서 한국창작음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주단체이다. 1960년대에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연주단체들이 그들의 정기발표회나 특별발표회에 창작곡을 연주레퍼토리로 선택하여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그리 많지는 않았다. 1960년대의 연주단체들은 특히 향토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1964년 12월 17-18일에 대구음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시립교향악단>이 힘차게 창단연주회로 정기적인 연주활동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는 몰라도 서양음악의 연주력 향상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작품을, 특히 대구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의 중요성은 거의 80년대에 와서야 부각된 듯하다. 그런데 <대구시향>은 창단연주회 때부터 꾸준히 가곡을 연주레퍼토리로 선택하기는 했으나, 향토작곡가의 작품은 거의 없었다.

대구시향이 가곡을 제외한 창작품들을 연주한 기록은 제8회 정기연주회(1966년 7월 2일)에서 김성태의 「교향적 기상곡」이 그 첫 예이다. 이어서 같은 해 제9회 정기연주회(9월 22일)에서 처음으로 영남지역의 작곡가 이상근의 「한국적 테마 안단테」를 첫 연주곡목으로 선택해 연주하였다. 한편 <대구시향>은 1966년 <대구음악가협회>의 송년음악회를 획기적인 레퍼토리로 편성한 바 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대구시향>의 제11회 정기연주회에서 우종억의 교향시 「달구벌」을 연주하였으나, 향토작곡가의 창작품을 연주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확산되지 못한 듯하다. 1968년 제16회 정기연주회에서 나운영의 「피아노협주곡」을 이강숙이 협연하였고, 그 이후로 대구시향이 6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한국인의 창작품을 연주한 기록은 없다.¹³⁾

¹³⁾ 손태룡,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연주목록 : 제1회-제176회,” 『大邱教育音樂』(대구 : 대구직할시교육음악협회, 1990), 창간호, 96-123쪽 참조.

한국작곡가의 작품으로 주로 가곡을 연주하는 풍토는 개인이나 몇몇이 모여 기획한 연주회의 경우에서도 보여진다. 1966년 3월 22일 매일신문사 주최의 신춘자선의 밤 6인음악회에서 6곡의 가곡이 발표되었는데, 향토작곡가의 곡은 하대응의 “산”뿐이었다.¹⁴⁾ 이 곡은 <전원합창단>이 같은 해 10월에 창단5주년기념연주회에서 합창으로 편곡되어 연주된 바 있다. 성악가들이 연주 발표에 가곡을 이태리 아리아나 독일가곡과 함께 편성하여 연주하는 전통을 만듦으로써 일찍부터 창작가곡장르는 발표무대가 다른 기악장르보다 잘 확보된 셈이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대구시향>의 정기연주회의 발표에서 서곡 형태의 곡과 관현악곡의 연주에 곁들여 협주곡이나 관현악의 반주로 편곡한 성악곡을 유연성 있게 레퍼토리로 편성해 가곡의 보급에 상당히 기여한 셈이다. 가곡연주는 1960년대에 실내악단의 연주회에도 끼어있다. 1966년 6월 15일 <대구현악4중주단>의 창립연주회와,¹⁵⁾ 그 이후의 연주회에도 성악가가 찬조출연을 하여 가곡을 불렀다.¹⁶⁾

3. 1970년대 작곡활동

70년대에 와서야 대구의 작곡가들은 개인작품발표회에서나 작곡단체나 동인을 이룬 활동을 통해 서서히 창작문화를 개척해 나갔다. 더욱 한동안 서양 음악의 연주역량을 키우는 데에 급급하던 많은 연주단체들도 80년대에 와서 점점 대구작곡가들의 창작품 연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구의 창작곡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음악대학의 작곡과가 어느 정도 체제적으로 확립된 후이다. 1961년에 설립된 <계명대학교>는 1971년에 예술대학을 음악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이듬해부터 작곡과가 분리되어 상당수의 작곡과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었고, 1953년에 설립된 <효성여자대학교>와 1970년에 설립된 <영남대학교>에서도 1979년에 작곡과가 분리 개설된 후 작곡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현재 위 3개 음악대학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돈보스코예술학교, 대구신학대학, 신일전문대학 등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학생수는 매년 200여명이 넘는다. 더욱 우리의 환경에서는 작곡가들이 작품활동만으로 생계

¹⁴⁾ 『매일신문』, 1966년 3월 15일자 참조.

¹⁵⁾ 『매일신문』, 1966년 6월 12일자 참조.

¹⁶⁾ 대구현악4중주단의 연주활동에 관한 내용은 『매일신문』 1966년 6월 15일자를 비롯하여, 70년 6월 10일, 75년 1월 12일, 4월 12일, 5월 9일, 6월 12일; 76년 3월 30일, 4월 11일, 4월 22일, 7월 1일; 77년 3월 9일, 3월 19일, 5월 12일; 78년 6월 13일, 83년 4월 25일자 참조하기 바람.

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몸담아 작곡을 가르치며 작곡 활동을 하는 대학이 음악창작문화를 이끌고 개척하는데 있어서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대구지역의 전문적인 작곡단체는 1970년 작곡동인회 <3인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¹⁷⁾ 백형칠·우종억·임우상 3인으로 구성된 3인회는 전문가의 협력활동 최초의 시도로 그 이후의 많은 작곡단체나 동인의 시조를 이룬다. 1971년 6월 11일 3인회는 백형칠의 「바이올린협주곡」, 우종억의 「현악4중주」, 임우상의 「목관5중주곡」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3인회 작품발표회를 K.G. Hall에서 열었다. 그러나 3인회는 백형칠이 대구를 떠나게 되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작곡동인의 진정한 활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예종의 <음악협회 경북지부>가 주관한 정기연주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창작곡의 발표무대로서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1970년 <음협 경북지부>의 제28회 정기연주회에서 처음으로 향토작곡가 김진균의 가곡 “강강수월래”가 연주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진균은 음협회원들과 힘을 합해 1974년에 제1회 한국음악의 밤을 <음협경북지부>의 주최로 기획하면서 창작곡의 연주가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한국음악의 밤은 서울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음악제를 제외하고는 지방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지방작곡가들이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도 발표할 기회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 한국음악의 밤은 바로 지방에 묻혀 있는 작곡가들을 발굴하는데 뜻을 두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서가 바탕이 된 우리의 음악을 창작하자는 데 뜻이 있었다.

한편 제1회 한국음악의 밤을 계기로 향토음악진흥을 위해 참여한 사람과의 의견은 음악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지역과 교류해야 할 것이며, 전통·현대성을 조화해야 할 것이고, 방향 있는 행사로 키워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1974년 6월 1일에 열린 제1회 한국음악의 밤은 계성국교 대강당에서 이성수의 “회정,” 김진균의 “금사자,” 석종환의 “초혼,” 이호섭의 “울음,” 이상희의 “아베마리아” 등 창작가곡 12곡을 무대에 올려놓았고, 이와 함께 기악곡으로는 우종억의 「클라리넷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김동환의 「피

¹⁷⁾ 『매일신문』, 1970년 6월 10일자 참조.

아노를 위한 조곡 3번」, 임우상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 그리고 합창곡 다섯 곡이 연주되었다.

당시 한국음협 경북지부장인 김진균은 제2회 한국음악의 밤을 1975년 5월 10일 영남대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작곡자는 최인찬·우종억·이상근·김동환·김동진·하대웅·석종환·김진균·임우상 등이었다. 이 작곡발표회는 한국적 성격을 표현함과 일반적 특색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음악문화의 동력이 되기를 김진균은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작가연맹 한국위원회>(ACL/Korea)는 1975년 10월 13-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작가연맹 제3차대회에 최인찬 등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열리는 서울음악제에서 발표될 작품은 신인작품 9편과 위촉작품 15편으로 모두 24편이 결정되었는데, 강석희·김정길·김진균 등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창작가곡·기악곡·합창곡으로 구성되는 틀을 가진 한국음악의 밤은 향토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되는 주요무대로 정착되었는데, 매년 한두 사람의 외부작곡가들을 초빙하는 것을 관례로 하여 타지역과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음악의 밤은 작곡가의 등용문 역할도 하여 매년 공모작품을 선정하여 기성작곡가들의 작품을 함께 연주하였다. 제2회 한국음악의 밤을 위해 음협 경북지부는 창작곡을 현역 작곡가들에게 위촉하였는데, 이들은 김동진·하대웅·석종환·김동환·이상근·최인찬·우종억·김진균·임우상이었다. 이들의 작품들로 1975년 5월 10일 영남대학교 대강당에서 두 번째 연주회를 개최하였는데, 독창곡으로 김동환의 “옛친구”를 비롯하여 8곡의 가곡과 함께 기악곡으로 최인찬의 「현악4중주」, 우종억의 「6개의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갈등」, 이상근의 「피아노를 위한 투영」, 그리고 합창곡으로 김진균의 「미사」와 임우상의 “광화문”이 연주되었다.

<음협 경북지부>에 의해 한국음악의 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970년대 후반을 장식하였다. 1970년대 후반의 다섯 번의 한국음악의 밤에서도 독주곡 또는 실내악 편성의 기악곡들과 가곡·합창곡들이 많이 선보였다. 1976년 4월 24일에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음악의 밤에는 임우상의 「현악4중주곡 3번」과 나운영의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전주곡」, 김동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조곡」의 기악곡들과 함께 권태복·지문현·나운영·이상희·하대웅의 가곡들, 그리고 이성수·최수남·장영목의 합창곡들이 연주되었다. 1977년 5월 14일에 열린 제4회 한국음악의 밤에는 한국적인 음열을 창안하여 작품화한 김정길의 「현악4중주곡」, 이색적인 음향을 추구한 김동환의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위한 3장」, 그리고 어려운 연주기술을 요하는 최인찬의 「변용」 등의 기악곡들과 함께 이성수·우정복·김진균의 가곡이 연주되었고,

조곡 구성을 갖는 합창곡으로 장영목의 「시편38편」과 이상근의 「한국의 꽃」이 연주되었다. 1978년 6월 24일 제5회 한국음악의 밤에는 다양한 실내악 편성의 기악곡들과 합창곡들이 연주되었다. 연주내용은 손성정의 실내악곡 「플룻 · 클라리넷 · 바순을 위한 트리오」, 임우상의 「브라스와 팀파니 · 징을 위한 파워」, 정용일 · 현정국 · 권태복 · 김정길의 가곡, 석종환 · 우정복의 합창곡, 초대작품으로 조두남의 “또 한송이 나의 모란”과 “뱃노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1979년 12월에 개최된 제6회 한국음악의 밤에는 초빙작곡가 정희갑의 독주곡작품과 임우상 · 유미숙의 실내악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1970년 후반기에 들어서 대구의 창작음악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작곡단체가 발족됐는데 이것이 <창우회>이다.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작곡가들의 모임인 창우회는 1976년 11월 25일 계명대 음대 중강당에서 제1회 세미나를 열어 최인찬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명예회장에 김진균, 사무국장에 김정길이 선임되기도 하였다. <창우회>는 제1회 발표회를 명성예식장에서 1978년 12월 19일에 열면서 9명의 작곡가가 창작가곡을 선보였다. 김정길의 “물결”을 비롯하여 안승태의 “꽃,” 김순명의 “가는길,” 이성수의 “가을이 서럽지 않게,” “산” 등과 함께 현정국 · 우정복 · 이안삼 · 장인식의 가곡도 함께 연주되었다.

그 후 <창우회>는 3년동안 멤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내실을 기하면서 1981년 기악곡과 가곡이 어우러진 작곡발표회를 준비하였다. 창우회의 회원은 음악대학 작곡과 또는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자들로서 대구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전문인들을 주축으로한 모임이다. 또한 그러한 배경이 없이도 현재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여 현역작곡가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열린 모임이다. 이 단체는 향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의 음악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주회는 주로 기악에서는 독주곡보다는 중주곡이 많이 연주되었고, 특히 가곡의 밤을 3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이 단체의 연주회로 47곡의 창작가곡이 소개되었다.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1970년에 <작곡동인 3인회>를 조직해 작품발표를 했던 백형철이 1970년 4월 16일 고려예식장에서 가곡 “동굴,” “문둥이” 외 7곡의 가곡과, 「피아노 조곡 1·2번」, 「현악4중주곡」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그의 「현악4중주」곡은 12음기법과 민속음계를 응용하였는데, 대구에서는 최초의 12음기법의 작품이었다. 이후 김진균의 가곡집출판기념연주회가 매일신문사와 계명대 대학원의 공동주최로 1970년 6월 16일에 계명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

주회에서는 김원경·한은재·홍춘선의 출연으로, 하이네의 시 “노래의 날개”에 곡을 붙인 가곡을 시작곡으로 하여 “못피는 꽃은,” “국화 옆에서,” “가는 길” 등 다수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3일에는 한성석이 대구YWCA강당에서 홍경표·이명학·오인복·신현석의 출연으로 작곡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조복열의 실내악 작품이 서울음악제에서 연주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0년 11월 30일에 석중환은 가곡 “향수”를 비롯하여 가곡만으로 편성한 제1회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석중환은 1973년 2월 21일에 대봉교회에서 교성곡 「솔로몬의 아가」를 내놓으면서 제2회 발표회를 열었고, 제3회로는 1977년 12월 23일에 「현악4중주곡」을 위시한 작품 외 다수의 곡을 계명대 강당에서 발표하였다.

한편 김진균은 1970년 12월 26일 그의 개창 미사곡을 계산천주교회에서 이상희의 지휘로 발표한 바 있으며, 1971년 10월 29일에 김진균은 다시 가곡발표회를 대구유네스코협회의 주최로 녹향에서 열었다. 김진균의 가곡발표회인 시와 음악의 밤에서는 한국 서시에 붙인 예술가곡을 시낭독과 해설을 곁들여 감상시킴으로써 시와 음악의 이해를 시도하였다. 김진균은 1972년 3월에 「김진균가곡집」을 음반으로 출판하여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어 1970년대 초반에 개인작품발표회를 통한 활동에서는 단연 선두였었다. 이 음반에서는 박성혜의 피아노 반주로 소프라노 박노경·테너 홍춘선·바리톤 김부열이 녹음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1973년 김진균이 제5회 서울음악제에 위촉작품으로 신석초 시인의 “금사자”와 신석정 시인의 “청산별곡”이 박수길에 의해 노래 불려졌다. 그해 10월 28일-30일까지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이 음악제는 한국의 작품만 연주되는 유일한 음악제였다. 작곡 부재의 향토음악계에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김진균은 1974년 11월에 세광음악사에서 가곡집 「招魂」을 출판한 바 있다.

특히 1973년 12월 28일 계명대 음악관 연주홀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우종억의 작곡발표회가 열렸는데, 연주된 곡은 현악4중주곡과 가곡,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투영」 및 여러 악기의 편성으로 된 실내악곡이었다. 한편 창악회 작품발표회가 서울대 음대강당에서 1974년 12월 2일에 열려 우종억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또한 1979년 3월 27일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제182회 정기연주회로 한국작곡가의 밤이 홍연택의 지휘로 열렸는데, 우종억의 「관현악을 위한 음악 음률」 등이 연주되기도 하였다.

김진균과 더불어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최인찬이다. 1974년에 <한국음협>이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제6회 서울음악제에 최인찬의 작품

이 위촉되었다. 또한 창작음악계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이며 신인작곡가의 등용 문이기도한 제8회 서울음악제가 <한국음협>의 주최로 1976년 10월 10-13일 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려 최인찬의 작품이 연주된 바 있다. 한편 <국립합창단>은 제5회 공연으로 한국합창곡발표회를 1976년 12월 1-2일 국립극장에서 김수원·나운영·최인찬 등의 곡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대구의 두 원로 음악가 하대웅과 박태준의 작곡발표회가 있었다. 하대웅은 회갑을 기념하여 가곡의 밤을 1974년 6월 11일 효성여대강당에서 박말순·김귀자의 출연과 김화자의 피아노반주로 “박꽃,” “진달래,” “봄비,” “먼후일,” “금강산,” “산,” “못잊어” 등 21곡의 많은 자작곡을 발표했다. 한편 박태준박사 작곡음악회가 1977년 11월 18일 시민회관에서 계성학교 개교 제71주년기념으로 열려 자신의 작품 40여 곡이 연주되었다.

임우상은 1969년 석사학위를 위한 발표회인 제1회 작곡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 번의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개인작품발표회 개최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974년 2월 7일에 임우상은 제2회 작곡발표회를 통해 “고독의 노래,” “떠나가는 배,” “바위” 등 5곡의 가곡과 「피아노를 위한 조곡」·「10개의 악기를 위한 소묘」·「현악4중주 2번」 등 3곡의 기악곡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1975년 12월 4일 제3회 작곡발표회를 임우상은 「목관4중주곡」과 「아쟁과 피리를 위한 영상」,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작품B」 등의 기악작품을 가지고 계명대 강당에서 개최하였고, 4년 후인 1979년 4월 7일에 가곡집 「고목」 출판기념 음악회로 명성예식장에서 “한국의 달”을 비롯한 가곡 14곡을 발표하였다.

구명림은 계명대 재학시절 정덕관과 함께 듀오작곡발표회를 1975년에 열었다. 구명림은 합창곡 “Te Deum I”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중주곡」을 레퍼토리로 구성하였고, 정덕관은 “그대로 나인 양,”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적 변주곡」 등을 발표하였다. 음악대학 출신이 아니면서 작곡활동을 한 유일한 작곡가인 우정복은 1978년에 작곡발표회를 열어 여성합창 편성으로 “첫 서리,” 혼성합창 편성으로 “가을 저녁의 시” 등의 합창곡 6곡과 12곡의 가곡을 발표했다.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1970년대에 와서 <대구시향>의 창작곡 연주는 가곡을 제외하고 미비한 상태였다. 제31회 <대구시향> 정기연주회에서 김성태의 「몽금포타령을 위한 교향적 기상곡」을 연주함으로써 두 번의 서울지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한 것 외에는 1974년 제58회 정기연주회에서 우종억의 교향시곡 「조국」을 연주

할 때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을 보인다. 3년의 공백기간 후에 세 개의 창작곡이 정기연주회 레퍼토리에 들어갔다. 1977년 4월 28일에 있는 제70회 정기연주회에서 유신의 「관현악을 위한 고담」이 연주되었고, 같은 해 5월 20일에 열린 임시연주회에서 안익태의 「코리아환상곡」이 연주되었으며, 1978년 9월 13일 제71회 정기연주회에서 권용진의 「교향시」가 연주되었다.

실내악단이나 합창단이 창작곡을 정기연주회의 연주레퍼토리로 무대에 올린다는 것도 창작음악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한다. <대구목관5중주단>이 1972년 6월 16일 김국진의 「목관5중주」를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고, <한알실내악회>는 1974년 3월 15일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 이상근의 현악4중주 제2번 「완전5도를 위한」을 연주하였다. <대구현악4중주단>도 1975년 6월 14일 최인찬의 작품을 제8회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한소리음악회>의 모임도 제2회 정기연주회를 1979년 12월 17일에 열었는데, 이때 정용일의 실내악편성을 위한 「달밤」이 연주되었다. <아카데미합창단>은 1971년 12월 11일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임우상의 「달밤」을 비롯한 합창곡들, 그리고 이성수의 「시편 100편」 백형철의 칸타타 「오 조국의 꽃이여」를 연주하였다.

당시 개인이 독주회와 기타 그룹을 결성해 연주회를 열면서 한국작곡가의 작품을 선택해 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연주가의 음악관이 아직도 서양음악 지향적이고 독자적으로 한국작품을 연주해석하며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명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던 로이테(M. Reuthe)가 윤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을 1973년 6월 7일 독주회에서, 그리고 최인찬의 *Der Laut und Schall*을 1974년 6월 20일 계명대 교수음악회에서 한 연주 좋은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1976년 5월 7일 피아니스트 이경희가 자신의 독주회를 효성여대 강당에서 개최하면서 이상근의 *Improvisation*을 연주한 것은 당시 창작음악계에 중요한 내딛음이었다.

4. 1980년대 이후 작곡활동

1980년도 작곡활동은 하대웅가곡의 밤, 명음회의 제2회 작곡발표회, <한국음협 경북지부> 제7회 한국음악의 밤이 열렸다. 1981년도에는 김진균의 예술가곡을 담은 가곡선집 음반인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아세아레코드사)이 출간되었으며, 아울러 녹향음악감상실에서 자신의 해설을 곁들인 디스크출간 기념감상회가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교작곡발표회, 분도창작음악발표회,

우중익 작곡집출판기념음악회, 제4회 임우상작곡발표회, 제3세대동인 창작발표회, 제3회 명음회작곡발표회, 김수원성악작품발표회, <예총 대구직할시지부> 제8회 한국음악의 밤, <창우회> 제2회 작곡발표회, 계명대 음대 작곡가 5인작곡발표회 등이 열렸다.

이건용은 무모한 무조성을 극복하고 우리 전통음악에 뿌리를 두어 청중에 다가서는 자세로 현실을 작품화하고 싶다고 1982년 3월에 밝히고, 최인찬은 서구의 기술과 한국정신을 혼합하여 작품을 구성해 보겠다고 나타내기도 하였다. 1983년에는 작곡가들의 창작음악에 대한 의욕이 크게 높아졌으며, 작곡가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그해 12월에는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임우상)가 결성되는가 하면, 창작음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한 <음협 대구지부>(지부장 남세진)의 제10회 한국음악의 밤('83 대구음악제), <창우회>의 제3회 창작곡발표회 등이 열려 창작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한편 젊은 작곡가 김은숙의 작곡발표회, <음협 대구지부>의 제2회 신인작품상 모집, <대구시향>의 창작곡 공모 및 창작곡 의뢰 공연, 구자만의 창악회콩쿨 대상 수상 등은 기록해 둘만한 수확들이었다. 그러나 원로작곡가 하대응의 타계는 1983년의 큰 손실이었다. 1983년에 있었던 작곡활동으로는 <한국예술가곡연구회> 제27회 한국작곡가의 밤, 효성여대 음대 작곡과 정기연주회, <대구시향> 제120회 기념음악회, 제10회 한국음악의 밤 등이 열렸다.

연주 일변도의 대구음악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창작음악에 대한 의욕이 크게 두드러지고 작곡가들의 모임은 물론 <음협 대구지부>와 <대구시향>, 그리고 <대구문화방송>도 창작 풍토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그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대구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창우회>는 1983년 1월에 제1회 음악세미나를 갖고 방향 모색을 했으며, <음협 대구지부>는 제3회 대구음악제 한국음악의 밤에 연주할 신인작품을 공모했고,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는 제1회 작곡콩쿨을 개최했다. 한편 <대구시향>도 관현악곡을 공모했으며, 대구 MBC-FM은 창작가곡운동을 벌렸다. 대구 MBC-FM의 경우 대구의 시인들이 쓴 노래에 대구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이고, 대구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창작가곡운동은 방송을 통해 전개했는가 하면 발표회도 갖고, 음반출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1984년에는 김정길·권순호의 작곡발표회가 열려 주목되었는데, 현대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여 수확을 안겨 주었다.

1984년에 와서는 <창우회>의 제1회 음악공개세미나, 제1회 대구작곡콩쿨, <대구시향> 관현악곡 현상작품모집, 권순호작곡발표회, 대구음악제, 한국음악의 밤, 대구 MBC-FM개국 창작가곡발표회, 김정길작곡발표회, 대구 MBC-

FM 창작가곡발표회 등이 있었다. 1985년에는 젊은 작곡가들이 새롭게 부상했는가 하면 <음협 대구지부>, <대구시향>, <대구 MBC-FM> 등이 창작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그리고 1985년에는 회갑을 맞아 김진균의 대표가곡들을 무대에 올려 관심을 모았으며, 강문칠과 고성익의 창작가곡발표회, 7인 작곡발표회와 하나 작곡발표회 등 젊은 작곡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한편 고승익은 가곡집 「승무」를 내 놓았다. 주요 작곡발표회로는 김창제작곡발표회, 대구음악제, <대구 MBC-FM>의 창작가곡발표회 등이 있었다.

뚜렷한 획을 그어 온 작곡에의 창작열기는 1985년부터 젊은 <작곡그룹 8504>, <하나>, <창우회>로 연결되는 음악인들에 의해 대위쳤으며, 김정길과 권순호의 작곡발표회와 실험무대 등이 자극제 역할을 맡음으로써 1986년의 창작분야를 알차게 만들었다.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가 마련한 작곡발표회와 <대구 MBC-FM>의 창작가곡집 출판 등의 움직임도 창작가곡 활성화의 디딤돌이었다. <작곡그룹 8504>는 발족이후 무려 13회의 발표회를 가져 우선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룹 <하나>와 <한국성가협회> 등의 젊은 세대들도 꾸준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등으로 하여 1986년의 창작발표회는 모두 20여회의 다수화를 기록했다. 또한 <대구 MBC-FM>은 제3회 창작가곡발표회에서 선보인 12편의 창작곡으로 「'86 창작가곡집」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향토 시인들의 노래시에 향토작곡가들이 곡을 붙이고 대구의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창작가곡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권태복의 예술가곡집 「한국의 처녀」가 4월에 나온데 이어, 우정복의 예술가곡집 「강이 풀리면」, 김진균가곡집 「산넘어 저 하늘이」가 잇따라 출판되었다. 한편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가 마련한 제3회 대구작곡콩쿨에서는 최은규, 그리고 <창우회>의 제1회 작곡콩쿨에서는 이대현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대구의 작곡계는 1987년에도 활동의 폭을 넓히는 의욕을 보였다. <작곡그룹 8504>, <창악회>, <창우회>, <제3세대> 등과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의 작곡발표회가 꾸준히 베풀어졌다.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는 4월에 제4회 작곡콩쿨을 실시했고, <대구동요작곡동인>의 창작집 「한마음」, 강문칠의 가곡집 「고독한 마음」 등이 발간되었다. <창우회>에서는 제2회 작곡콩쿨작품을 공모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임우상과 강문칠 등이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그러나 매년 실시됐던 <대구 MBC-FM>의 창작가곡의 밤이 사정에 의해 일시 중지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제3세대> 창작음악발표회,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 제4회 작곡콩쿨, 여성3인 현대극음악 작곡발표회, 제2회 창작동요발표회, 교수6인 작곡발표회,

<아침이슬 작곡동우회>의 첫 발표회, <작곡그룹 8504>의 제17회 작곡발표회, 임우상작곡발표회, 효성여대 대학원 작곡과 재학생 5인작곡발표회, 향토작곡가추모의 밤, <창악회> 초청작곡발표회가 1987년에 열렸던 창작활동이다.

창작음악 활동이 점차 자리잡아간 1988년도는 대구지역 음악계의 수확으로 꼽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다. 오늘의 한국인의 정서를 다양한 기법과 독자적인 음악 언어로 우리시대의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들려 준 작품발표회들은 여성5인 작곡그룹인 <열림>의 첫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작곡그룹 8504>,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의 작곡발표회가 각각 있었으며, 개인발표로는 이철우가 작품집출판과 함께 첫 번째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또 경북대학교 등, 음악대학 작곡과 재학생들의 연구발표회, 그리고 12월 5일에 있는 <창우회>의 창작가곡발표회까지 모두 일곱 번의 창작음악 무대가 열렸다.

1980년대를 맺는 1988-1989년에도 계속적인 작곡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창작음악계의 새 방향을 제시해 온 <창악회>가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1988년 5월 2-3일 세미나와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그러나 악보의 출판 또는 테이프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주인과 음악애호가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창작곡발표회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1988년 5월 30-31 일에는 <20세기 작곡연구회>의 현대음악발표회와 우중역의 작곡발표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20세기 작곡연구회>의 제18회 현대음악반발표회에는 새로운 감각의 창작곡들이 무대에 올려져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창작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가곡과 실내악곡이 주류를 이루어 대작이 아쉬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결산하는 1989년은 특히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창작활동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조성과 무조성의 창작소품발표회, 김희영클래스 작곡연구발표회,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 제6회 작곡발표회, <열림> 제3회 작곡발표회, <도레미> 창작동요발표회, <한국성가협회> 제4회 창작성곡발표회 등이 있었다.

(1) 작곡단체를 통한 창작활동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음악협회 대구지부>가 음악창작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무엇보다도 1974년에 시작하여 매년 1회씩 지속적으로 향토작곡가의 작품들을 모아 발표한 한국음악의 밤 행사이다. 1980년대에도 매년 개최되었으며 1995년까지 22번의 정기발표회가 있었다. 1980년대 첫 한국음악의 밤은 제7회로 김동환의 「현악4중주」를 시작 곡으로 하여, 이견용의 「첼로를 위한 산조」, 김정길의 「바이얼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리」, 하오주의 「달무리」, 김경양의 「오월가」, 김진균의 「엄마야 누나야」 등의 가곡과, 진규영과 안

승태의 합창곡들이 함께 연주되었다. 1981년 제8회 때에는 박재성·이해식·석종환·김수원·임우상·김동환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임종길·정원상, 그리고 김은숙의 공모작품이 발표되었다. 이중 이해식의 「가야금과 장고를 위한 달구벌소리」는 1963년 초연된 우종억의 교향시 「달구벌」과 함께 대구의 정서를 표현한 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9회 한국음악의 밤 때인 1982년에는 제1회 “대구음악제”라는 좀 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다른 분야의 음악활동과 연계를 이루며 열렸다. 한국음악의 밤은 대구지역 작곡가들이 새로운 민족음악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촉발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발표되는 작품들에서도 한국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고 작품해설에 제시하는 작품들이 많이 연주되었다. 1983년에 제2회 대구음악제에서 열 번째의 한국음악의 밤을 열었을 때는 이 한국음악의 밤 시리즈를 통해서 140여곡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곡의 수는 대폭 줄고, 기악독주곡이나 실내악곡 작품들로 연주곡 편성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에 열린 한국음악의 밤에서는 1992년에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진규영의 「소프라노와 타악기를 위한 명상」을 비롯하여, 김창재의 「소프라노, 플룻, 대금, 첼로,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판」 외에 안승태·성기남·강석희의 기악곡들이 연주되었다. 1988년부터 합창곡 작품은 합창의 밤 연주회에서 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창작가곡도 역시 다른 형태의 음악회로, 예컨대 한국가곡의 밤이나 가곡과 아리아의 밤, 향토가곡의 밤 등의 형태로 옮겨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제9회 대구음악제에서 열렸던 제17회 한국음악의 밤에는 김승호의 「현악4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A-E」, 김창재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리」, 김희영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애도」 등의 기악곡을 비롯하여 서수의 “견우와 직녀,” 이무호의 “아버지의 마음,” 정희치의 “산향” 등 6곡의 가곡이 불려졌다. 이듬해 제10회 대구음악제의 제18회 한국음악의 밤에서는 김정길의 「현합주를 위한 풀라쥐」, 정태봉의 「피리, 대금, 양금과 가야금을 위한 소리인길 IV」, 진규영의 「소프라노와 피아노, 그리고 2개의 글로켄을 위한 에언 I」과 구자만·임주섭·유행웅·임우상·백병동의 기악곡들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11회 대구음악제의 제19회 한국음악의 밤에서는 가곡은 전혀 없이 조치노·김진우·이인식의 독주곡과 정용일·장병영·이근택·우종억의 실내악곡이 연주되었고, 제12회 대구음악제의 제20회 한국의 밤에서는 전재현·홍세영·진규영·김창재·윤이상·진영민·유행웅·강석희의 기악곡들이 역시 가곡은 없이 발표되었다. 이 날의 한국의 밤은 20회째 열리는 것으로, 그

첫 행사로부터 이때까지 32곡의 독주곡과 65곡의 실내악곡, 23곡의 합창곡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창설되어 1978년 12월 처음으로 작품발표회를 열면서 활동을 시작한 작곡단체인 <창우회>는 80년대에 들어와서 모두 5회의 작곡발표회를 가지며 끊임없는 활동을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열린 발표회는 권태복의 “가을산 기슭에는” 등 5명의 작곡가의 가곡과 이안삼의 「플룻콘체르토」, 정용일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합장」 기악곡이 연주되었다. 2년 후 1983년 제3회의 <창우회> 발표회에서는 권순호의 「오르간과 혼성4중창단을 위한 36+고백」, 이성수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김승호의 「피아노 트리오」, 권태복의 「피아노 조곡」, 임우상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향 II」, 김정길의 「현악4중주」의 기악곡들과 정용일·강석중·우정복의 가곡을 선보였다. 80년대 <창우회>의 작품발표회를 보면 기악곡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대신 가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창작계 초기의 역사가 창작 가곡으로 점철하던 경향이 서서히 변화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표곡들은 연주자 교섭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악기 구성이 비교적 쉬운 소규모 기악 장르의 곡들로 제한되었다. 1986년 10월 20일 제4회 창우회발표회에서는 임주섭의 「독주 첼로를 위한 소리줍기」, 구자만의 「4개의 악기를 위한 연음」, 강석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단편」, 정용일의 「대금과 첼로를 위한 대화」와 김승호·김정길의 작품들로 기악곡만이 연주되었다. 창작가곡들은 1988년 12월 5일에 <창우회> 회원 12명이 창작가곡집을 출판한 후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창우회>는 1990년 6월 4일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으로 기획한 작품발표회를 통해 7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강석중의 「인성,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무제」, 성석태의 「클라리넷을 위한 독백」, 권태복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물빛」, 김정길의 「첼로를 위한 소리자리의 전환」, 임우상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향 VIII」, 김희영의 「소프라노, 테너, 플루트를 위한 옹헤야 주제에 의한 미니멀리즘 시도」, 진규영의 「마그네틱 테이프를 위한 점, 선, 점」이 발표되어 다채로운 연주회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13일에 제9회의 발표회를 가져 <창우회>의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구자만·김승호·최종남·서수·장병영·정태봉·김동환의 작품과 콩쿨 대상을 수상한 김정호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창우회>는 1991년 5월 30일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창작가곡의 밤으로 열었는데, 연주된 곡들은 김창재·권태복·정희치·우정복·강석중·김희영·진규영·우종억·임우상·김정길의 작품이었다.

1990년에 들어와서 <창우회> 작곡발표회는 보다 더 전국적 규모로의 확장의 꾀하여 타 지역 작곡가의 작품을 초빙하는 것을 관례화 하여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의 작품의 초연무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11월 6일 <창우회> 발표회에서는 김병곤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을 비롯하여 장병영·김창재·김승호·정희치·임우상의 작품들이 연주되었고, 한편 콩쿨 입상작은 박철하의 작품이었다. 제12회 작품발표회는 1992년 5월 28일에 박경득·박진희·이상만·입주섭·정용일의 작품을, 제13회발표회는 구자만·고승익·이인식·김정길·임우상 등 향토작곡가의 작품과 서울의 나인용, 미국 작곡가 도널드 업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창우회>는 현재 4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작품발표회 이외에 여러 형태의 세미나도 열어 작곡가들의 학문적 관심과 교육 분야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창우회 콩쿨을 매년 개최하여 참신한 신인작곡가들을 발굴하고 대상곡을 창우회 연주회 때에 발표하여 작곡 지망생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우회>와 더불어 작곡단체로서 또 하나의 기둥을 이룬 단체가 1980년대에 들어와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1983년 10월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직할시 지부>로 창립하여 매년 작곡발표회를 열어오다, 1990년 중앙 집중적인 문화권을 벗어나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작곡가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해 7월에 다시 <영남작곡가협회>로 개칭하였다. <영남작곡가협회>로 개칭을 한 후 대구시뿐만 아니라 넓게는 영남지역 작곡가들을 영입하여, 현재는 영남지역의 창작음악계를 대표하는 원로작곡가들과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젊은 작곡가들로서, 90명 가까운 회원들이 이 창작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단체도 정기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1993년 8월 현재까지 아홉 번의 작곡발표회를 가져 향토작곡가들의 작품발표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협회도 몇 회의 세미나를 통해 내실을 기하였다.

1983년에 있었던 <한국작곡가협회 대구지부>(후에 <영남작곡가협회>)의 첫 작곡발표회에서는 권순호의 성악독창곡 「동창이 밝았느냐」, 김은숙의 「두 개의 오보예를 위한 단편 II」, 서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고뇌-환희」를 비롯해 김창재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전향 84」, 입주섭의 「목관 악기를 위한 소리다듬기」 등 모두 9명의 작곡가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제2회 작곡발표회와 1985년의 제3회 작곡발표회는 창작 가곡의 발표무대였다. 제2회 발표회에서 연주된 작품은 이은희의 「바이얼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꿈트」, 그리고 박민희의 “나그네”를 비롯하여 9명의 작곡가의 가곡 18곡이었다.

제3회의 작곡발표회 때는 송옥헌의 “비오는 날”과 “달맞이 꽃,” 심상훈의 “못잊어”와 “왕십리,” 그리고 임우상의 “타작마당,” 강문철의 “민음, 소망, 사랑,” 이춘길의 “초혼”과 “겨울바람” 등 7명의 작곡가에 의해 10곡의 창작 가곡이 불려졌다. 그리고 1987년 제4회 발표회는 기악곡과 성악곡이 고루 갖추어진 연주였다. 기악곡으로는 김승호의 「오보에와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전환」을 비롯하여 서미경·홍세영·김은숙·임우상의 작품이 연주되었고, 권순호가 「오르간과 신디사이저, 그리고 합창을 위한 트리오」를 내놓으면서 전자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 주었다. 성악곡으로는 우종억의 “만남”과 “거지,” 김창재의 조지훈 시에 곡을 붙인 “파초우”와 “하늘,” 이춘길의 “별후”와 “하차”가 연주되었다.

1988년 제5회 발표회에서는 배정희의 「피아노를 위한 어떤 때는」, 류행웅의 「실로폰, 비브라폰, 마림바를 위한 2장」, 이무호의 「인성과 오보에를 위한 환과연극」 등 5명의 작곡가의 실내악곡과 가곡 4곡이 불려졌다. 이듬해 1989년 11월 제6회 발표회에서는 정용일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가을의 정취」, 강석중의 「클라리넷, 트럼본, 타악기를 위한 장」, 한국배의 「피아노 변주」, 이철우의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유희」가 발표되어 기악곡이 6곡, 성악곡이 4곡 무대에 올려졌다.

1990년에 들어와 <영남작곡가협회>는 활동영역이 대구에 집중되는 것을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협회는 제7회째 연주회로 사흘을 잡아 대구·부산·마산에서 서로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개최했다. 그 해 11월 6일에 열린 대구발표회에서는 최인식의 「현악4중주」를 비롯한 6곡의 기악곡과 정희치의 가곡 “세상을 몰라 묻노니”를 연주하였다. 1992년 6월의 발표회가 부산에서 역시 열렸고, 1993년 6월의 발표회에서는 부산의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구의 작곡가로는 임주섭·강석중·정용일·김승호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영남작곡가협회>도 해마다 신인등용문으로 작곡콩쿨을 실시해 신인 작곡가를 발굴하여 오고 있다. 1993년 8월 현재까지 모두 7곡의 콩쿨 수상작품이 기성 작곡가의 작품과 나란히 발표되어 왔다. 한편 수상자는 임주섭·이은희·김성은·권은실·박진희·김재희·김유정 등이었다.

<영남작곡가협회>는 회원들의 연례 작곡발표회 이외에도 1991년부터 영남국제현대음악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적 음악제를 개최함으로써 영남지역 작곡가들이 외국의 작곡가들과 교류하며 우리의 음악적인 감각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외국의 음악적인 감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품발표회를 열고, 매년 특정한 작곡가들을 정해 그들의 작품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작품연주도 하고 있다. 1992년까지 두 차례의 음악제를 통해 이상근·최인식·진규영·조성룡·김희영·진영민·권태복·윤성현·임주섭·윤해중 등 영남지역 작곡가와 외국의 작곡가들이 함께 작품을 무대에 내놓았다.

1980년 중반에는 앞에서 언급한 두 작곡단체, 곧 <창우회>와 <영남작곡가협회> 이 외에 또하나의 창작단체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1985년에 창단된 <한국성가협회>이다. 이 협회에서는 이름 그대로 창작성가 작품만을 발표하였다. 한국성가협회는 1985년에 제1회 창작성곡발표회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 가까운 시기에 발표회를 가졌다. 이 협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진실한 교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므로, 창작성곡발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이 협회의 성격이라고 발표회 팸플렛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성가협회>의 구체적인 창작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1월에 열린 제1회 연주회에서는 권태복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정복의 독창곡 “사랑하시는 자에게,” 중창곡 “궁홀히 여기소서”와 김승호의 합창곡 “가야바의 궁전”을 비롯하여 김노현·김두완·김성완·김연준·나운영·하재은의 창작 성곡 16곡이 연주되었다. 이듬해 제2회 성가발표회에서는 독창곡으로 김승호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명현의 “산상복음,” 이영수의 「내가 산을 향하여」, 이성수의 「시편 63」 등 6곡이 불려졌고 중창곡으로는 이인삼의 “복있는 사람은,” 정용일의 “갈릴리 바다”가, 합창곡으로는 우정복의 “영생에 이르러니”와 “비바람이 칠 때” 등이 연주되었다. 제3회 연주회에서는 이인삼의 중창곡 「주의 빛」과 임우상의 독창곡 “저 밭에 나가”와 이영수의 합창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등 7명의 작곡가에 의해 많은 곡들이 발표되었고, 제4회 연주 또한 권태복·김승호·김창재·여명현·이영수가 작곡한 9곡이 발표되었다. 1990년에 열린 제5회의 연주회에서는 권태복의 성가곡 “장미의 기도,” 정태봉의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이인삼의 전자음악 「요셉 노아」가 발표되었다. 이 작품들을 계기로 이후에는 다양한 장르가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밝힌 네 단체 이외에 현재는 회원들이 대부분 서울로 진출하여 근거리가 옮겨졌지만, 결성 당시에는 대구에서 활동하였던 이건용·유병은 등 젊은 대학교수들이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와 이전세대와 다름을 강조한 “제3세대”의 작곡단체가 있었다. <제3세대>의 제1회 창작발표회가 1981년 6월에 어린이회관 피크리극장에서 열렸는데, 진규영의 천상병 시에 곡을 실은 “길”과 “당신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작곡가의 곡이 발표되었다.

사회의 대중매체나 기획 단체가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작곡가들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고, 발표의 장도 마련해 준 대표적인 예가 1984년부터 4년간 지속하였던 MBC 창작가곡의 밤이다. <대구 MBC-FM>는 향토 시인과 향토작곡가를 매달 선정하여 가곡 한 곡씩을 위촉하여 출판하였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10월이나 11월에 날짜를 정해 12곡 전체를 발표하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첫 MBC 창작가곡발표회는 1984년 10월 24일에 열렸으며, 제2회는 1985년 11월 19일에, 제3회는 1986년 11월 25일에 개최되었다. 1987년에 제4회가 열린 후 <대구 MBC>의 후원이 아쉽게도 끝나자 몇 년이 지난 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발표회 체제가 재구성되었다. 1992년 8월 대구의 시인·작곡가·연주가들 23명의 회원들이 모여 <대구예술가곡회>란 명칭의 동인을 구성하였다. 시인들이 시를 쓰고 거기에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매년 예술가곡의 밤이라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동인회원의 연주가들이 연주하게 하는 것이 이 동인의 계획이고, 그 첫 번째의 실현은 1992년 11월 3일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작곡 활동의 중추역할을 기성 작곡가들의 손에 주로 좌우되긴 하였지만, 새로운 작곡가 세대의 동인활동을 통한 꿈틀거림은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대구의 작곡동인에는 <8504>, <하나>, <친미>, <열림> 등이 있다. 이 동인들은 대부분 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젊은 작곡가들의 모임으로, 각 동인마다 그 성격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중 가장 활발했던 동인이 1985년 4월에 결성되었다는 뜻의 <8504>이다. 1984년에 창단하여 4월에 제1회 작곡발표회를 가진 이후 1988년에는 4번의 발표회를 여는 열성을 보여 주었다. <8504>는 6년(1991년까지)이라는 기간동안 22회의 많은 연주회를 가지면서 이미 규정 지어진 음악에 대한 모든 관념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음소재 발굴 및 표현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시도한 젊은 작곡가들의 단체였다. 그러므로 악기 편성이나 장르, 악곡의 쓰임새 등, 음악의 여러 면에서 개성적인 작품이 많았다. <8504>에서 주로 활동한 동인은 이상만·강문철·이경훈·홍세영·최병석·홍금표 등이다.

<8504>라는 단체를 통해 발표된 곡으로 홍금표의 「덧니 I」(10회)와 「내일」(14회, 16회) 시리즈, 최병석의 「바이올린을 위한 정」(20회)과 「두 대의 대금을 위한 선율」(10회), 강문철의 「첼로,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상류와 하류 IV」(17회), 「피아노를 위한 별 I, II, III」(4회), 이상만의 「4개의 플루트를 위한 무늬 III」(12회)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리짓」(21회) 등이 있다. 특히 이경훈은 국악적 요소를 창작활동에 많이 가미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제14회 연주회에서 발표된 곡인 「2개의 오보에, 2개의 클라리넷과 2개의

복을 위한 아리아리랑」, 제17회 연주에서 「사물과 두대의 피리를 위한 양면성」, 제20회 연주에서 독창곡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홍세영은 1986년 제12회 발표회에서 「시낭독을 위한 배경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때 동시에 김재건의 시를 낭송하게 하였고, 제9회 연주회에서 「5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서 있는 사람들」, 제13회 연주회에서 「인형극 미운오리새끼를 위한 배경음악」 등을 내놓아 부수음악작품을 시도하였다. <8504>는 또한 창작 동요에도 관심을 두어 1985년 제5회와 1987년 제16회의 작곡발표회를 동요에만 집중하여 발표함으로써 그 보급에 한 몫을 하였다. 제5회 연주회에서는 강문철의 “아카시아꽃을 먹으며”와 이상만의 “소풍길,” 최병석의 “그림자,” 홍세영의 “가위, 바위, 보,” 이경훈의 “나이테”가 각각 연주된 바 있다.

<하나> 동인은 임주섭·이은희·성기낭·이철우 등이 주요 활동인으로 하여 1985년 10월에 1회 작곡발표회를 하였으나 1987년 3회의 발표회를 끝으로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제1회 연주회에서는 문희만의 「세악을 위한 추」, 임주섭의 「첼로를 위한 소리줄기」, 성강옥의 「목관4중주를 위한 맛」, 성기낭의 「클라리넷과 바이얼린을 위한 대화」 외 이은희의 곡이 연주되었으며, 이듬해 제2회 발표회에서는 이철우의 「클라리넷과 바이얼린, 피아노를 위한 절대차원」과 유영선의 「소프라노, 플루트를 위한 봄밤 소묘」, 이은희의 「세대의 피아노를 위한 묵시록」 외 다수가 연주되었다. 마지막 제3회 연주회에서도 회원들의 실내악곡들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여성5인 작곡동인으로 구성된 <열림>은 1988년 11월에 첫 발표회를 가졌으며, 1989년 11월에 제3회 작곡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동인이었다. 세 번의 발표회에서 현대 양식의 실내악곡을 중심으로 김옥주·홍지연·이수진·한주형 등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동인 “천마” 또한 젊은 작곡가들이 모여 1988년 6월 광병원에서 첫 발표회를 가졌는데, 이무호의 「인성과 오보에를 위한 한과 연곡」, 장대덕의 기악중주 「첼로와 바이얼린을 위한 동경」이 연주되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지속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며, 대학연합서클인 <도레미>가 창작동요발표회를 1989년에 가지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동인의 발표회로 주의를 끌었다. 1979년에 창립되어 1980년대 전반부를 통해 활동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작곡과 재학생 모임 <명음회>의 발표회가 있었고, 계명대학교·영남대학교·경북대학교·효성여자대학교 작곡과 재학생들 20여명으로 구성된 <아침이슬> 작곡동우회가 첫 발표회를 1987년 8월에 열었다.

역시 기성음악인들의 작품활동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 작곡가들의 작품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기성작곡가들이 지도체제를 이루고 결성한 모임

이 있다. 대구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젊은 음악인>은 학교와 지역간의 벽을 넘어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대구현대음악제를 가져 1995년 현재 5년의 역사를 갖는다. 대구현대음악제는 현대음악 작곡기법이나 연주기법과 관련된 주제나, 현대작곡가론이나 작품론 등의 주제로 갖는 세미나와 각종 현대음악연주회로 3-4일간의 일정을 잡아 젊은 작곡가들의 축제로 열려 오고 있다. 이 음악제는 현대음악연주가 또는 연주단체로 명성이 있는 국제적 인물들을 선정해 초청하여, 국내외의 기성작곡가와 젊은 작곡가들의 현대작품들을 연주하는 초연문화를 키우고, 대구와 타지역 기성작곡가 한 사람씩을 선정해 작품세계를 논하고 발표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작곡가로는 1992년에 우종익, 1993년에 임우상의 작품론이 연구발표되고 작품연주회가 마련되었다.

한편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들이 동아리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음악대학 교수들이 그룹으로 연주회를 여는 교수음악회(어떤 경우 동문음악회)는 창작곡이 연주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고, 특히 작곡과 교수들의 음악회인 경우에는 초연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효성여자대학교 작곡과 교수들이 그 첫 발표회 무대를 1984년에 마련하였고, 이때 주로 창작가곡을 무대에 올렸다. 1987년 6월 23일 개최된 효대5인 교수발표회에서는 전중재의 기악중주곡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듀엣」, 성석태의 독창곡 「신별곡」, 김은숙의 「두개의 플루트를 위한 Fragments V」, 류행웅의 「플루트, 바순, 클라리넷을 위한 조각」, 김희영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사군자」 등이 연주되었고, 1988년 6월 21일에 효대6인교수발표회에서는 김은숙의 「장과 피아노를 위한 단편 IV」, 류행웅의 「바이얼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이 연주되었다.

또한 1989년 6월 21일에는 류행웅의 「비올라 소나타」, 장병영의 *Profile für 2 Klarinetten*, 성석태의 「전설」이, 1990년에는 성석태의 *Torso*, 전중재의 첼로곡, 장병영의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Seon」이 연주되었다. 1991년 6월 11일에 열린 교수음악회에서는 장병영의 「컴퓨터와 전자음향을 위한 시도」, 류행웅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Piece」, 김은숙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록-9740」이 연주되었고, 1992년 효대 6인교수작곡발표회가 6월 4일에 열렸을 때는 성석태의 현악4중주곡 *Rakastava*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1992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6인 또는 5인을 그룹으로 하여 효대 교수들이 발표를 하여 왔다. 한편 동인구성의 형태는 아니지만 1회적으로 여러 작곡가들이 동아리를 이루어 발표회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

(2) 작품발표회를 통한 창작활동

1970년대에 이미 세 번의 발표회를 열은 임우상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제4회·제5회·제6회 발표회를 꾸준히 열어 대구작곡계에 다산적인 작곡가로 선두에 있다. 1981년 5월 그의 제4회 작곡발표회에서는 가곡 “선인장”과 “어느날의 그림자,” 합창곡 “피꼬리가 물고간 가지,” “시편 150,” “온땅이여 여호와께,” 혼성합창을 위한 2개의 성곡 “시편 100편,” “시편 150편” 등 7곡을 내놓았고, 기악전자음악으로 「인성과 전자음향」·「타악기를 한 바람꽃」이 연주되었다. 이날 작곡발표회에서는 개인 작곡발표회에서는 보기 드문 수의 합창단원이 대거 출현하였다. 1987년 제6회 임우상작곡발표회가 이듬해 9월 계명대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연주장르는 제5회 발표회 때 성악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탈피하여 현악합주를 위한 「향 VII」과 「7개의 플룻을 위한 정단」과 「클라리넷을 위한 4개의 단편」 등 기악곡에 편중하였다.

우중억은 1981년 2월 20일에 작곡집 출판을 기념하면서 음악회를 명성에 식당에서 열었다. 이날의 연주 레퍼토리로는 독창곡 “가을밤의 빛소리,” “모른다고 한다,” “복사꽃 그늘에서,” “봄은 내게로 오네”와 기악중주곡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곡 2번」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그해 11월 3일에는 김수원이 효성여대 대강당에서 성악장르의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한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듬해인 1982년에는 정치희의 작곡발표회가 있었는데 독창곡으로는 “야밤중,” “산수유,” 기악곡으로는 「피아노와 바순을 위한 패세지」와 「현악4중주」·「피아노,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트리오」가 있었다. 1983년에는 김은숙이 역시 효대강당에서 작곡발표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연주된 작품은 「바이얼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단편」·「현악4중주」였다. 1984년에는 김정길의 독창곡 세 곡과 합창곡 세 곡, 기악중주곡 두 곡으로 구성된 김정길작곡발표회를 열었는데, 독창곡은 “나그네,” “물결,” “쓸쓸한 피 앞에서,” 합창곡은 “여성합창을 위한 가을 저녁의 시”와 “혼성합창과 타악기를 위한 소리,” 기악곡으로는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위한 소묘」·「바이얼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1985년에는 원로 작곡가 최인찬의 회갑기념 가곡발표회가 열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강문철과 고승익이 함께 자신들의 창작가곡만을 모아 동아백화점 스타홀에서 열어 강문철은 자작시 “고독한 마음”과 “나의 기도,” 한기팔의 “들길에서,” “불을 지피며” 등 여덟 곡을, 고승익은 “가을의 기도,” “주의 기도,” “비녀” 등 모두 아홉 곡을 발표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개인작품발표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1986년에 김정길씨 대부분 창작가곡들로 구성되어 발표회를 열었는데 「옛이야기」·「여름의 달밤」·「쓸쓸한 뒤편에서」·「네가 가던 그날은」·「묘비령」 등 10곡의 가곡을 무대에 올려놓았다. 같은 해 젊은 나이에 애석하게 유명을 달리한 김수원의 추모작곡발표회가 11월 12월 동아백화점스타홀에서 열렸다. 1987년에는 강문철과 권순호 두 사람의 작품발표회 기록을 볼 수 있다. 강문철은 기악독주 「피아노를 위한 4 Pieces」와 중주곡 「혼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무언가」 등 6곡과 가곡 「아리랑별곡」·「앞산을 바라보며」·「어디로」 등 6곡으로 많은 곡을 무대에 올려놓았다.

1988년에는 정용일·우종억·강문철·장대덕·홍세영·이철우 등 모두 6명이 작곡발표회를 열어 다른 해와 달리 개인발표회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해이다. 정용일은 5월에 첼로독주곡과 「피아노를 위한 세마당」의 기악독주곡 2곡, 금관5중주와 목관5중주 2곡, 창작성곡인 「나의 방패 여호와」와 「해곡3장」 2곡을 발표하는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달 5월 우종억은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에서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념」과 「현악4중주곡 제2번」, 2곡의 기악곡과 함께 「동성로에서」·「거지」·「산중에서」·「앓은 땀이꽃」 등 가곡 4곡을 함께 발표하였다. 장대덕은 6월 동아문화센터에서 첫 작곡발표회를 가졌는데,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가락」·「플루트와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리만들기」 등 기악곡 4곡과 「내혼에 불을 놓아」·「다도해」 2곡의 독창곡을 발표하였다. 홍세영 또한 젊은 작곡가로서 1988년 6월에 「어린이를 위한 3곡의 노래」·「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혼을 위한 조곡 가위, 바위, 보」 등 4곡의 기악중주곡과 함께 마지막 곡으로 전자음악인 「시와 행위를 위한 공간 하객」과 무용음악 「청해제」를 구성하여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이철우는 1988년과 1989년 연속으로 작곡발표회를 가지는 열성을 보였다. 1988년 11월 11일에 열린 제1회 발표회에서는 「바이올린을 위한 수평과 수직」·「클라리넷을 위한 음열의 변용-즉흥곡I」 등 6곡의 기악곡을 발표하였으며, 1989년 11월 28일 제2회 발표회에서는 「피아노를 위한 세개의 유희」·「클라리넷을 위한 산조, 영원」, 현악4중주곡 「나자렛 예수-1989」 등을 연주하였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정희치는 칸타타 「5월과 부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감람산의 기도」와 「가시면류관 쓰신 어린양 예수」·「사망권세 이기신 주」 등 10곡의 성곡을 발표하였다. 그해 11월 이인식작곡발표회를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에서 가지고 독창곡 「여호와와 나의 목자」, 독주곡 「알토색소폰을 위한 환타지」·「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소리」 등 6곡을 발표했다. 1991년 1월 18일 진규영은 전자음악만을 선택하여 동아쇼핑 스타홀에서 작곡발표

회를 가졌다. 거기에서는 「환상」·「소프라노, 바이올린, 테이프를 위한 묘비명」·「비디오 영상과 음악을 위한 다비」 등의 작품과 실용음악인 무용음악 「상어의 춤」·편곡작품인 「기다리는 마음」·「꽃구름 속에」 등 다양한 형식의 전자음악이 소개되었다. 1991년 11월 28일에 김창재가 작곡발표회를 실내악 곡들로 편성하여 열었는데,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잔영」·「피아노를 위한 점 I, II, III」·「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리」·「네대의 첼로를 위한 공명」 네 곡의 무대였다. 한편 색다른 형태의 작곡발표회가 1992년 11월 1일에 열렸다. 이날 방보웅은 원불교의 불교합창단의 연주를 통해 가곡 3곡과 「불가의 염원」을 위시한 합창곡 12곡을 발표하였다.

(3) 연주를 통한 창작활동

1980년대에 와서 <대구시향>은 매년 아홉 번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그외 협주곡의 밤·청소년을 위한 밤·기념음악회 등 임시연주회와 대구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모금, 창작음악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작품발표 등의 특별음악회를 열면서 연주활동이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도 대구의 창작음악문화에 큰 활력소가 된 연주회가 기획되어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에 <대구시향>은 향토작곡가들의 신작연주에 집중하는 6회의 특별연주회를 열어 창작곡발표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이는 창작인구도 좀더 많아지고, 음악계 전체에 나타난 한국창작곡의 연주활성화와 당위성 대두에 따른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상근의 축제음악 「55432」와 다수의 외국곡이 우종억의 지휘로 1982년 제113회에 연주되었고, 이상근의 「55432」는 제145회 정기연주회에 다시 연주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대구시향은 1983년에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된 것에 대한 기념음악회를 가지고 한국가곡을 위한 연주회(제120회)로 열어, 우종억의 기악곡 「현악합주를 위한 율」 외에 강문철의 「고독한 마음」을 비롯하여, 김귀자가 「초혼」, 김성호가 「이어도」, 김영철이 「또 얼마나」 등 8명의 작곡가의 창작가곡작품을 연주해 그 의미가 컸다.

1984년에 대구시향은 한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외교의 일환으로 한일현대관현악작품연주회를 제127회 정기연주회로 기획하였다. 한국의 작품으로는 당시 계명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박기섭의 「거울」과 전지예의 「얼」, 영남대 대학원 임주섭의 「관현악을 위한 동해일출」이며, 일본의 작품으로는 우종갑(일본 洗足학원 음악부 강사)의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발라드(2) 기도」와 입야의랑(入野義朗: 일본 도호대학 음악학부 강사)의 「현악4중주」가 함께 연주되었다.

제5회 달구벌축제 및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경축기념으로 제145회 정기연주회가 1986년에 열려 한국음악만을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 연주곡은 계명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최천희의 「사물과 관현악을 위한 몽중악시」 등 3명의 신인작곡가의 3곡과 안승태의 「가는길」과 김정길의 「완화삼」 등을 연주했다. 이날 연주에서 이색적인 곡으로는 장일남의 「대금과 관현악을 위한 단상」으로, 이 곡은 당시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이던 이인수가 대금을 연주하여 국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한 곡이었다. 마지막 곡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상근의 축전음악 「55432」가 장식하였다.

1988년부터 대구시향은 매년 정기연주회의 하나로 창작품을 위한 특별연주회를 기획하였다. 이는 대구의 창작문화에 획기적인 촉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라 할 수 있는데, 1988년 9월 제163회 정기연주회는 그렇게 기획된 첫 연주회였다. 강수일이 이날 지휘한 연주곡들은 이근석의 「관현악을 위한 봉인」과 김희영의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관현악 알타이와 베가」, 최인식의 「태극」이 연주되었으며 특히 편성이 큰 진규영의 「다섯개의 Gesang과 관현악을 위한 예언」이었고, 함께 연주된 이춘길의 합창곡 「환희의 날」은 <대구시립합창단>과 경북대학 <아카데미코러스합창단>이 참여하였다. 이 음악회는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연주될 수 없는 많은 대편성 악곡들이 발표되는 장이었고, 그래서 대구작곡계에게는 중요한 계기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연주회를 위해 작품을 기성작곡가에게 위촉하여 발표의 기회도 제공하였지만 연주될 곡을 응모하기도 하였다.

<대구시향>의 제172회 정기연주회는 1989년 9월에 창작품을 위한 2번째 특별연주회 행사였고, 오모작 윤현국의 「명상을 위한 관현악」을 첫곡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장병영의 「여명」, 유병은의 「시나위 5번, 5월의 노래」, 박재성의 「소리구조」, 임우상의 「산경을 위한 관현악」 등 5곡이 연주되었다. 1990년의 창작품 특별연주회로 열린 제181회 정기연주회는 6월 26일 제2회 패시픽현대음악제의 한 행사로 김병곤의 「신포니엠타」, 오숙자의 「관현악을 위한 덧뵈기」와 외국인들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같은 해 9월 21일에도 <대구시향>은 제183회 정기연주회를 제9회 달구벌축제의 한 행사로 열었는데, 임우상의 교향시 「마찰」을 연주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는 창작품을 위한 특별연주회 체제를 따르지 않고 다시 창작품들이 서양음악연주와 섞여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임주섭의 「관현악을 위한 동해일출」(1992년 4월 30일, 제199회), 우종억의 「관현악을 위한 운율」(1992년 6월 16일, 제201회), 김희영의 「플룻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번」(제202회), 진영민의 「도술가」(1992년 9월 25일, 제204회), 최인식의 「영

혼의 세계」(1993년 7월 9일, 제221회)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대구시향> 이외에도 민간교향악단들이 창작곡을 연주함으로써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달구벌교향취주악단>이 1983년 정기연주회에서 임우상의 「팀파니와 징을 위한 힘」을 연주하였고, <바로크교향악단>이 1982년 4월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김승호의 「교향곡 1번 우물」을 연주하였고, 1990년 12월에는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로 진규영의 축전서곡 「바로크의 회상」을 연주하였다. 하지만 민간교향악단이 창작곡만을 연주레퍼토리로 정해 연주회를 개최하기에는 관객의 호응도 등 여러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구의 크고 작은 실내악단들이 80년대에 들어와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여 왔으나 실제 창작곡에 관심을 두어 연주에 임한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애석한 일이고 새롭게 각성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러 단체들 중 비교적 많은 창작품을 정기연주회의 레퍼토리에 넣어 연주한 단체인 <계명실내악단>은 1980년 6월 15일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 장일남의 「가야금과 현을 위한 산조」를 연주하였고, 1988년 1월 15일 창단1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이상근의 「팀파니와 현악합주를 위한 대조」를 연주하였다. 2년 후 1990년에도 김정길의 「현합주를 위한 풀라쥐」를 연주하였다.

한소리음악회는 작곡가들과 연주가들의 모임이어서 정기발표회를 통해 창작품이 많이 소개되었다. 1979년 12월 제2회 연주회에서 처음으로 정용일의 「기악곡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혼, 바순을 위한 달밤」 등의 창작곡을 연주하였고, 이어 제4회에는 강문철의 독창곡 「고독한 마음」과 「들길에서」, 제5회에는 서수의 기악독주곡 「플룻을 위한 4정경」 등 매 연주회마다 한 곡씩 창작품을 연주하였다. <알피네첼버앙상블>은 강문철의 기악중주곡 「바이올린 오보에, 첼로, 피아노를 위한 혼선」을 1986년 제2회와 1987년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연속으로 연주하였다. <누리앙상블>은 1987년 홍세영의 현악4중주곡 「사흘에 한번」과 1988년 고승익의 현악4중주곡 「영감 I, II」를 두 차례 연주하였다. <노바현악합주단>은 1988년 임우상의 「현악합주를 위한 혼」과 1988년 이상근의 현악합주곡 「완전5도를 위한」 중에서 제2·3악장만을 연주했다. 그 외의 실내악단체들도 한두 번씩의 연주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구리코오드합주단>은 임우상의 「리코더와 타악기를 위한 MAJAL의 노래」를, <첼버앙상블>은 임우상의 「6개의 트럼펫과 2인 타악기를 위한 대화」를, <대구트럼본협회>는 1988년 창단연주회에서 강문철의 「트럼본 4중주를 위한 방랑인과 고향」을, 트롬본앙상블이 1986년 5월 임우상의 「4대의 트럼본을 위한 대화」를 연주한 것이 그 예이다.

창작합창곡들은 <대구시립합창단>의 연주회에서도 무대에 올려졌다. <대구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된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에서 가곡을 편곡하여 무대에 올렸다. 그러나 향토작곡가들의 창작합창곡을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한 기록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1984년 제10회 연주회인데, 이때 권태복의 「이별」·「갈대밭에서」·「가을의 기도」 세 곡이 연주되었다. 이후 <대구시립합창단>이 창작곡들을 연주하여 특징을 보인 정기연주회는 1988년 4월 29일에 열린 제22회 발표회로 나운영의 칸타타 「3·1의 햇불」을 연주하였고, 이춘길의 「이날이 저날이게」와 「변화산상」 두 합창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개관을 계기로 향토작곡가들의 합창곡들이 위촉되어 <대구시립합창단>에 의해 초연된 음악회가 1990년 5월 23일에 마련되었고, 이 음악회에서 김승호의 「낙화」, 정희치의 「고추잠자리」, 이성수의 「흰구름」 등이 연주되었다. 이후에도 <대구시립합창단>은 1991년 9월 18일 제36회 정기연주회에서 임우상의 「높새바람」, 이건용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진규영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를 연주하였고, 젊은 음악인 모임의 현대음악제의 한 행사이자 <대구시립합창단> 제39회 정기연주회로 연 음악회에서 백병동의 창작곡들만을 무대에 올려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기도 하였다.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원아카데미합창단>도 꾸준히 창작곡들을 무대에 올려놓았다. 나운영의 「부활칸타타」·「시편23편」 등으로 시작하여 향토작곡가들의 합창곡들을 정기레퍼토리로 갖고 있다. 그외 타지역의 연주단체들이 대구에 들러 창작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부산연주단체인 <부산시향금관5중주단>이 1991년 대구연주회에서 금관5중주를 위한 「엇모리」를, <부산시립합창단>이 순회공연차 들러 권순호의 「논개」와 임우상의 「사모곡」을, <대우합창단>이 1985년 고승익의 「주의 기도」와 임우상의 「에밀레종」을 연주하기도 했다.

5. 맺는말 : 작곡활동의 새로운 이해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작곡활동이 대구에서 개척되었다 해서 대구의 창작음악문화가 발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과 질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음악회가 어떻게 이뤄졌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면으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작곡활동의 연구결과로 대구작곡사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음악사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로 말미암아 음악

활동이 서울 중심으로만 이뤄지지 않고 대구에서도 음악활동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태리 오페라의 아리아나 독일가곡과 나란히 한국가곡이 연주되는 전통은 대구에서 일찍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개인독창회에서 창작가곡을 택해 연주한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 기악독주회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확립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기악독주자들이 한국창작품을 독주회 레퍼토리에 구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남다른 관심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연주자들 중에서 이경희(피아노) · 김경임(피아노) · 우정일(피아노) · 유호욱(첼로) 등을 제외하고는 연주 레퍼토리에 창작품을 포함하는 예가 드물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김경임은 1981년 9월 7일 자신의 독주회에서 김동환의 「피아노를 위한 조곡 1 어린시절」과 「피아노를 위한 작은 조곡」 두 곡을 연주하였다. 1981년 11월 17일에는 이경희가 다시 한번 이상근의 *Improvisation*을 자신의 독주회 레퍼토리에 포함시켰다. 윤이상의 피아노 독주곡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도 1983년 11월에 김형규의 독주회에서 다시 연주되었다. 우정일은 자신의 1985년 5월 15일과 1986년 10년 26일에 열린 두 번의 독주회에서 우종익의 「피아노를 위한 투영」, 정용일의 「소나타 낭인」을 각각 연주레퍼토리 안에 포함시켜 창작곡을 연주하는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신봉애도 1985년 4월 8일 자신의 독주회에서 김청목의 「환상곡」을 연주하였고, 정욱희도 1987년 3월 23일에 권순호의 「풍경」을 독주회 레퍼토리로 편성하였다. 첼로주자 유호욱도 김정길의 작품 두 곡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리」와 「독주 첼로를 위한 소리자리의 전환」을 자신의 독주회에서 연주하였다.

창작의 활성화는 젊은 작곡가를 육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음협 대구지부>를 비롯하여 <대구 MBC>나 <매일신문사> 같은 대중매체기관에서 마련하는 신인음악회나 콩쿨 등으로 새로운 작곡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연주한 무대를 매년 제공하여 왔는데, 그러한 무대마련이 예비작곡가를 등단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기관에서는 물론 문화재단 등에서 폭넓은 작곡활동의 장을 펼쳐, 대구의 작곡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부록> 『毎日新聞』 작곡기사 제목(연도별) : 1950년 8월 - 1995년

(1955년부터 1989년까지의 『毎日新聞』 음악기사 제목에 관해 알려면, 손태룡, 「한국음악의 인식과 비평」(대구 : 중문출판사, 1993), 184-325쪽 및 「중보판 한국음악의 인식과 비평」(1995), 286-429쪽을 참조하기 바람.

- 1951.3.28(2) : 신춘예술제전(문예극회창립 공연 : 문화극장)
 3.29(2) : 신춘예술제전(문예극회창립공연 : 문화극장)
 4.19(2) : 희망연주회(송죽극장)
 1952.8.15(2) : 8·15의 노래(정인보/작사 : 윤용하/작곡)
 12.5(2) : 김동진가곡론(김진균)
 1955.12.20(2) : “대구시민의 노래” 劉載德씨 곡을 선정
 1956.3.18(4) : 12음 음악
 3.18(4) : 전자음악(외지에서)
 4.14(2) : “대구시민의 노래” 콩쿨대회개최(대구시)
 6.10(2) : 韓東-카네기홀 연주사진
 57.3.12(4) : 구체음악과 전자음악(외지에서)
 3.12(4) : 합성음악(외지에서)
 3.12(4) : 화성인의 음악(외지에서)
 3.15(4) : 화성인의 음악(속)
 3.20(4) : 금주에 나타난 인물들-바하·림스키코르사코프·찌리-
 5.17(4) : 전자음악의 장래
 5.18(4) : 전자음악의 장래(중)
 5.19(4) : 전자음악의 장래(하)
 5.22(4) : 바그너(동화통신 제공)
 6.12(4) : 금주에 태어난 인물들-구노·그리그·스트라우스-
 6.19(4) : 잃어버린 하이든의 미사곡-오지리에서 발견-
 6.30(4) : 낭만파의 음악-웨버·슈베트-(외지에서)
 7.1(4) : 낭만파의 음악(속)-슈베트의 씨클·베를리오즈-(외지에서)
 7.25(4) : 생애에서 본 차이코프스키(상)
 7.27(4) : 생애에서 본 차이코프스키(중)
 8.2(4) : 생애에서 본 차이코프스키(하)
 8.24(4) : 스트라빈스키 탄생기념 공연(U SIS 시사)
 9.7(4) : 현대의 음악-스트라빈스키·쾨베르그·바르톡-
 9.8(4) : 현대의 음악(중)-레스피기-
 9.10(4) : 현대의 음악(하)
 9.15(4) : 미래의 음악(외지에서)
 9.18(4) : 거장 쇼파와 여성-그의 생애와 예술의 윤곽-
 9.19(4) : 거장 쇼파와 여성(하)
 58.5.15(4) : 시벨루스의 第八番
 5.27(4) : 실험예의 의욕-음악과 컴퓨터의 관련중시-(申曠集)
 9.21(4) : 李相根작곡집 감상의 밤 개최
 59.1.27(4) : 작곡가 羅運榮씨를 맞아(대구방송국)
 3.1(4) : 태극기가 바람에-3·1절 수상-(金聖道)
 5.10(4) : 낭만주의 악성 슈베트(安鍾拜)
 60.2.3(4) : 영화음악작곡가협회 창립(영화음악작곡가)
 2.22(4) : 쇼파의 예술과 생애-그의 탄생 150주년에 즈음하여-(김기우)
 2.23(4) : 입체음악의 장치와 효과-라디오는 70KC로-(李相萬)
 3.3(4) : 리듬
 3.31(4) : 평화예의 기원-安益泰 작곡 “한국”과 한국공연
 5.29(4) : 4·19의 노래-김장수 작사, 백남영 작곡-(악보)
 61.6.29(4) : 혁명가와음악가-조국과민족에바친예술, 베토벤·그리그·토스카니니-
 7.9(4) : 음악의 할아버지 “세바스찬 바흐”
 7.16(4) : 음악가의 어린시절(2)-꼬마 임금님 모쥔트-(文吉鎔)
 7.23(4) : 음악가의 어린시절(3)-음악의 영웅 베토벤-(文吉鎔)
 7.30(4) : 음악가의 어린시절(4)-가곡의 왕 슈베트-(文吉鎔)
 8.20(4) : 음악가의 어린시절(끝)-무겁고 폭넓은 “브람스”, 밝고 명량한 “멘델스존”-(文吉鎔)
 9.7(4) : 불란서의 근대작곡가 “달리우스 미요”의 작곡세계(秋秉基)

- 12.8(4): 구체음의 “몽파즈” 구체음악-연주자가 필요없는 전자음악-(원화여고 교사)
- 12.8(4): 미국에서 물의 일으킨 우연성의 음악-존 케이지-
- 62.2.14(4): 62년도의 새 “리듬”-트리스트(미국)와 찰튼(구라파)-
- 2.14(4): 현대용어 풀이-리듬·앤드·부르스-
- 2.16(4): 현대용어 풀이-양상불(음악)·바록음악-
- 4.7.(?): 신교전파의 시조-악성 “브람스”를 추모하여-(趙-)
- 5.9(4): “도민의 노래”-웅모마감 9일로-(음협 경북지부)
- 12.8(6): 마을노래를 제정-밤마다 한테 모여 즐거운연습-(경주)
- 63.2.5(7): 명곡야화(2)-조팔정 진혼곡-(安鐘拜)
- 2.8(7): 명곡야화(5)-브람스 피아노소나타-(安鐘拜)
- 2.10(7): 명곡야화(7)-바그너 지크프리의 목가-(安鐘拜)
- 2.13(7): 명곡야화(9)-쇼팽 이별의 노래-(安鐘拜)
- 2.15(7): 명곡야화(9)-리스트 향가리광 시곡-(安鐘拜)
- 2.17(7): 명곡야화(10)-멘델스존 루이 로라스-(安鐘拜)
- 2.19(7): 명곡야화(11)-헨델 수상의 음악-(安鐘拜)
- 2.20(7):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원본 등, 불란서곡가 바르세이유 악보 등(사진)
- 2.21(7): 명곡야화(12)-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安鐘拜)
- 2.22(7): 명곡야화(끝)-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安鐘拜)
- 4.26(8): 『河大應가곡집』-정신적인 결정-
- 4.26(8): 신간-河大應씨 가곡집-
- 5.21(8): 도민의 노래(도공보실)
- 11.7(8): 차이코프스키의 생애와 작품-그의 70주기를 보내며-(이인회)
- 64.6.24(8): 가사현상모집-農民의 노래-(農園編輯室)
- 65.5.19(6): 현대음악발표회-19일 서울음대에서-
- 8.27(8): 구슬픈 作別의 曲
- 11.14(6): 영국국가가는 낱아
- 11.21(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1)
- 11.24(6): 베를린음악제서-尹伊桑씨 大好評-
- 11.26(4): 朴俊相작곡 발표-KBS정기연주-
- 11.26(6):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1)
- 12.7(4): 계대강사 朴俊相씨, 교향곡작곡으로 데뷔
- 12.10(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2)
- 12.12(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3)
- 12.16(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4)
- 12.21(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5)
- 12.22(4): 카라이안의 현대음악 談義(끝)
- 66.5.20(6): 음악과 사회적 기능-작곡가의 입장에서-(朴俊相)
- 7.17(6): 인기작곡가를 찾아(1)-히트曲의 周邊, 朴是春편-
- 7.19(6): 인기작곡가를 찾아(2)-히트曲의 周邊, 孫牧人편-
- 7.21(6): 인기작곡가를 찾아(3)-히트曲의 周邊, 羅花郎편-
- 7.24(6): 인기작곡가를 찾아(4)-히트曲의 周邊, 全吾承편-
- 7.26(6): 인기작곡가를 찾아(5)-히트曲의 周邊, 白映湖편-
- 7.28(6): 인기작곡가를 찾아(6)-히트曲의 周邊, 孫夕友편-
- 7.31(6): 인기작곡가를 찾아(7)-히트曲의 周邊, 朴椿石편-
- 8.2(6): 인기작곡가를 찾아(끝)-히트曲의 周邊, 李鳳祚편-
- 8.4(6): 이미바양 맹연습, 3曲더 취입
- 9.1(6): 美작곡가 코프랜드씨 연설-현대음악의 특징-
- 67.3.19(4): 작곡가 權泰浩씨-서울로 이주-
- 10.27(5): 한국현대음악내 작곡가초빙 발표회-31일 서울음대홀서-
- 11.3(5): 하대웅작곡발표회-4일밤 효대강당서-
- 68.7.17(5): 햇별본 베토벤 遺曲-피아노소나타 E플랫장조-
- 9.27(5): 김진균가곡발표회-10.1일 녹향서-
- 10.6(5): 음악회평-김진균가곡발표를 듣고-(이상만)
- 69.1.26(5): 바호작품 연주유행-최근 미국 재즈계 소식-
- 2.12(5): 새 슈베르트곡 발견-피아노야상곡 그란치 판타지-
- 7.20(5): 작곡가 윤용하씨-23일 묘지제막식-

- 8.8(5): 음악가의 숨은 이야기(上)-헨델
·바하·하이든-
- 8.10(5): 음악가의 숨은 이야기(中)-모짜
르트·베토벤-
- 8.13(5): 음악가의 숨은 얘기(下)-웨버·
슈베트·쇼파-
- 11.26(5): 임우상작곡발표회-27일밤 계대서-
- 70.3.26(5): 파파의 악성 베토벤-26일은 그
의 死去143주년-
- 4.15(5): 白亭七작곡발표회-16일 밤8시
고려예식장서-
- 4.18(5): 백형칠작곡발표회에 나온 申仁淑양
- 4.23(5): 서울음악제 연주창작품 모집
- 5.20(5): 실내악곡 작품모집-서울음악
제서 연주-
- 6.10(5): 작곡동인회 三人會발족
- 6.11(5): 김진균 가곡발표회
- 6.13(5): 시와 음악의 향연-『김진균가곡
집』출간기념발표회-
- 7.11(5): 조복열씨 작품 등 결정-제2회 서
울음악제공연에-
- 11.5(5): 한성적작곡발표회
- 12.24(5): 김진균미사곡 발표-가톨릭합
창단서-
- 71.6.9(5): 3인회 창작발표회-11일 밤8시 K
G홀서-
- 10.10(5): 祖國의 노래 作曲
- 10.10(5): 祖國의 노래 作曲
- 11.25(5): 김진균가곡발표회
- 12.9(5): 작곡발표회 가진 김진균씨
- 72.3.30(5): 『김진균가곡집』음반출간
- 6.20(5): KBS 두번째 참가-국제작곡가제전-
- 10.18(5): 김진균발표회-19일 서울서-
- 10.26(5): 김연준작곡발표회
- 10.29(5): 중앙무대서 자작발표회-김진
균교수-
- 12.5(5): 대구 최의선씨 입선-KBS 국민
의 노래-
- 12.5(5): 생활의 노래가사-KBS 현상모집-
- 73.2.4(5): 생활의 노래 공모-KBS 제3차로-
- 2.22(5): 석중환 작곡발표회
- 2.27(5): 음악회평-석중환작곡발표회를
보고-(김중환)
- 3.22(5): 국제현대음악제 연주곡으로 김
정길씨 작품품 선정
- 4.19(5): 창악회 작곡발표회
- 4.24(5): 유럽樂團 주름잡는 韓國의 作曲
家 尹伊桑
- 5.24(5): 백병동작곡발표회
- 5.26(5): 미5공군군악대-29일 대구서 연주-
- 7.25(5): 윤이상씨 10.귀국-서독오페라단과-
- 10.6(5): 현대음악이란?(최인찬)
- 11.14(5): 작곡세미나
- 11.14(5): 작곡세미나
- 11.20(5): 신간안내-하대웅교수 제2 가
곡집 『산』
- 11.21(5): 초대석-제2가곡집 낸 하대웅교수-
- 11.24(5): 韓國歌曲의 갈길-作曲家會 세미나-
- 12.27(5): 신작가곡발표회-29일 서울서-
- 12.27(5): 우종억씨 작곡발표회-28일 계
대음악관-
- 74.1.15(5): 최인찬씨 등 15명에 서울음악제 위촉
- 2.1(5): 임우상 작곡발표회-7일 계대서-
- 2.3(5): 소재의 벽에 부딪칠 때(5)-작곡가
임우상씨 경우-
- 3.10(5): 소재의 벽에 부딪칠 때-작곡가
김진균씨의 경우-
- 3.15(5): 경북예총협회 새지부장들의 새
설계-작곡발표회 등-(김진균)
- 4.11(5): 新作音樂作品 공모-도내작곡
가 대상-
- 6.6(5): 하대웅 가곡의 밤-11일 효대강당-
- 6.8(5): 제1회 韓國音樂의 밤 계기-향토
음악 진흥을 위한 의견-
- 8.25(5): 교육계떠난 작곡가 이흥렬씨
- 11.27(5): 김진균가곡집 『招魂』-김진균
가곡집-
- 12.4(5): 창악회발표회-우종억씨등 작품-
- 12.7(5): 경북음협 가곡공모-4월에 공연-
- 12.14(5): 김진균씨 출판회
- 75.1.12(5): 가을공연작품 공모-서울음악제-
- 1.23(5): 창악회 새임원선출
- 4.13(5): 김연준씨 작곡발표-25일 동경서-
- 5.9(5): 한국음악의 밤-음협경북지부-
- 5.16(5): 음악회평-제2회 韓國音樂의 밤
을 마치고-(金晋均)
- 6.8(5): 흥난파 미발표 소설 발견
- 6.28(5): 최인찬씨 등 9명-亞洲작곡가 蘇
출품
- 7.2(5): 서울음악제 발표곡-김진균씨 곡
등 24편 선정-
- 9.17(5): 음악의 밤 작품공모-경북음협-

- 10.17(5): 부산대 이상근교수-한국작곡가상 수상-
- 10.18(5): 창작활동 크게 서양영향-亞·太음악인대회 동서의 음악-
- 11.8(5): 또 가을을...(9)-작곡가 하대웅씨-
- 11.30(5): 임우상작곡발표회-4일 계대서-
- 12.19(5): 음악작품모집-경북음협-
- 76.2.22(5): 작곡가 최인찬교수-국제현대음협 공모에 입선-
- 6.19(5): 국내외 작품 44곡 연주-서울국제음악제 개막-
- 6.20(5): 관현악 등 공모-亞洲작곡가대회-
- 8.5(5): 대한민국음악제-9월에 3주간 열려-
- 8.8(5): 새로운 음악문화 방향제시-9.제1회 대한민국음악제 개최-
- 10.1(5): 崔仁贊 作品연주-서울음악제-
- 10.3(1): 새군가 작곡만 재공모-11월 30일까지-
- 10.21(5): 姜碩熙씨 作品 서독서 각광-베를린음악제의 최고찬사-
- 11.7(1): 새군가 작곡공모 30일로 마감
- 11.17(5): 국제현대음악회에 다녀온 최인찬교수
- 11.25(5): 창우회 25일 작곡세미나
- 11.26(5): 최인찬씨곡 등 공연-국립합창단-
- 12.12(5): 보람있는 76(1)-작곡가 최인찬씨-
- 12.19(1): 새군가작곡 3편 선정
- 77.1.14(5): 국악
- 2.9(5): 올해 韓國作曲家의 밤-11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서-
- 2.19(5): 대한민국작곡상 10월까지 후보공모
- 3.7(5): 작곡가 이수철씨-뇌혈전으로 사망-
- 6.26(5): 작곡가 권용진씨-7일 월간음악상-
- 9.3(5): 가을에 말하는 음악가(4)-작곡가 崔仁贊-
- 9.17(5): 우종억씨도일-1년간작곡등연구-
- 11.2(5): 姜碩熙작곡 플루트와 피아노를 ..., 78년도 세계음악제에 입선
- 11.17(5): 朴泰俊박사 作曲音樂會-18일 大邱市民會館-
- 12.10(5): 제1회 대한민국작곡상 심사발표-아쉬움 남긴 걸작발굴-
- 78.1.13(5): 창작회 작곡콩쿠르-창립20돌기념-
- 3.3(5): 大韓民國 作曲賞 施賞계획-참여 기회 대폭 확대-
- 3.3(5): 방곡 아시아작곡가음악제-서구 모방에서 탈피-
- 5.9(5): 한국 타악기로 살린 민요풍-창악회 작곡콩쿠르 입선 손성정씨-
- 5.17(5): 세계 열광시킨 작곡가 벌린웅 90회 생일
- 5.18(5): 어린이성가곡 경연
- 6.24(5): 한국음악의 밤-24일 계대강당서-
- 12.13(5): 제2회 대한민국작곡상-첫 대통령상 이상규씨-
- 12.27(5): 대한민국작곡상-28일 文振院서 시상-
- 79.1.27(5): 창작회 작곡콩쿠르-작품마감 3.31일-
- 3.28(5): 국향 우종억곡 연주
- 3.29(5): 주일새벽 미사에 현대전자음악 도입시도
- 4.3(5): 주목끈 임우상가곡집 『枯木』... 7일엔 가곡의 밤
- 5.28(5): 강석희 작품 등 3곡-국제작곡가제 출품-
- 6.4(5): 어린이성가곡 경연-6월 17일 서울Y서-
- 6.4(5): 작곡콩쿠르입상-본상에 박정희씨-
- 6.7(5): 성곡집 제1집 출판
- 6.21(5): 亞洲작곡가회의의 10월에 음악제
- 7.11(5): 미발표작곡 등 발굴-國劇서 해방전 작품-
- 9.26(5): 아시아작곡가대회·음악제-來 10-17일 서울서-
- 10.29(5): 세계가요 마감-국내 예선은 13일-
- 12.17(5): 대한민국 작곡상에-대통령상 강석희씨-
- 12.18(5): 대한민국 작곡상-대통령상 달하-
- 6.21(5): 서울음악제 공모-42곡중당선8곡-
- 80.1.7(5): 작년 대중가요 하루 1백곡 나와
- 2.20(5): 하대웅가곡의밤-25일 효대강당서-
- 2.23(5): 작곡콩쿠르 작품-4월 10일까지 모집-
- 3.18(5): 작곡가협 定總-회장에 김세형씨-
- 7.16(5): 향토출신 재미작곡가 김병곤씨-한국적인 벗 바탕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해야-
- 7.18(5): 國際作曲大會 참가-음악協시 작품모집-
- 7.19(5): 작곡가 최인찬씨 서독서 발표회-단소 등 5곡 연주 호평-

- 8.16(5): 대한민국 작곡시상계획 발표—국악·양악 등 3개부문—
- 11.20(5): 우리 가곡사에 불멸의 족적—타개한 작곡가 이흥렬선생—
- 12.6(5): 명음회 작곡발표회—9일 계대강당—
- 12.18(5): 韓國音樂의 밤—韓國音協 慶北 지부—
- 81.1.7(11): 향토서 첫 가곡음반 낸 김진균씨
- 1.15(11): 서윤교 작곡발표회
- 1.26(7): 고향의 봄 작가 이원수씨 별세
- 2.4(11): 分度創作음악발표회 10일 대구서 개막
- 2.19(11): 우종익씨 작곡집출판기념 음악회
- 2.20(11): 모차르트 새교향곡 발견
- 2.24(11): 현대음악의 대축제
- 3.3(11): 6월 한국음악의 밤 갖기로
- 3.5(11): 아시아 작곡가회의 개막
- 4.3(11): 애국가 가사 최고본 발견
- 4.8(11): 美亡命형가리작곡가—바르톡 탄생 100주년—
- 5.7(11): 작곡가모임 창우회 신입회원모집
- 5.19(11): 난파40주기 작곡집 영인본 출간
- 5.19(11): 임우상씨 21일 작곡발표회
- 5.25(11): 음악평론—임우상작곡발표회—(김진균)
- 6.4(11):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 교향곡 백18년만에 햇빛
- 6.24(11): 제3세대동인 창작발표회, 27일 대구 分度소극장
- 8.10(11): 美작곡가 가스톤 12년만에 귀국공연
- 10.15(7): 대구 Y 전자음악이 주는 것—사이키음악 청소년에 유해—
- 10.24(7): 명음회작곡발표회, 29일 계대서
- 11.2(7): 작곡가 김수원씨 성악작품발표회
- 11.5(7): 8회 한국음악의 밤, 예총대구지부 10일 대구시민회관
- 11.5(7): 음악평—김수원성악발표회—(이건용)
- 11.9(7): 영대음대 정기연주회, 베토벤곡 발표
- 11.17(7): 창우회 2회 작곡발표회, 19일 오후 7시 계대강당
- 11.18(7): 계대음대작곡가 5인작곡발표회
- 82.2.20(7): 선구자의 작곡자 조두남옹, 6년째 외로운 투병생활
- 3.11(7): 새지평을 연다(4), 실험하는 작가를 찾아서—작곡가 진규영—
- 3.26(7): 새지평을 연다 실험하는 작가를 찾아서(10)—작곡가 이건용씨—
- 3.31(7): 새지평을 연다, 실험하는 작가를 찾아서(13)—작곡가 최인찬—
- 5.26(7): 음악의 밤 작품공모
- 6.28(7): 효대예술대작곡과세미나—서우석교수 한국음악의 방향—
- 7.26(7): 계대대학원 석사과정 작곡발표
- 10.30(7): 영대작곡과발표회
- 11.24(7): 인테뷰 효대 이건용교수—공간사제정 음악대상 수상—
- 83.2.8(7): 작곡가의 밤…14일 오후, 7명 신작 28곡 선보여
- 2.16(7): 현대음악, 실험기간 길어 방향—파울 쉴 하프스키 특별강의—
- 2.23(6): 『새씨의 노래』 발간—대구교육대—
- 4.4(11): 한국가곡 작품공모
- 4.27(11): 10회맞는 한국음악의 밤, 창작음악 발전기틀 마련
- 4.29(7): 대구음협 신인작품 최우수상, 박기보의 목관5중주곡(김정길의 평)
- 6.2(7): 창작회콩쿠르 대상 구자만
- 6.9(7): 하대웅씨 美서 타계
- 6.9(7): 효대작곡가연주회
- 6.28(7): 시향 창작음악 활성화 시도—7월 1일 한국가곡을 위한 연주회 마련—
- 7.13(7): 채동선합창곡집 『한강』 출간
- 9.3(7): 하대웅추모음악회, 5일 효성여대 대강당
- 9.13(7): 창작가극 초본공연, 국립오페라단 국립극장
- 9.19(7): 작곡가 최인찬씨 베를린서 발표회
- 9.29(7): 작곡가 김세형 3회 가곡공로상
- 10.8(7): 창작음악 활성화도색—83대구음악제—
- 10.27(7): 영남대작곡발표회
- 11.15(11): 국악기조이론강좌—울산악회—
- 11.25(7): 작곡발표회 갖는 김은숙씨
- 12.9(7): 작곡가협대구지부결성—회원 40명… 지부장에 임우상씨—
- 12.21(7): 대구작곡가모임 창우회 창작 12곡 발표
- 84.1.14(7): 美작곡가 톨슨 현세대 개탄
- 1.20(7): 작곡가모임 창우회 음악공개세미나
- 1.26(7): 창우회세미나 예상밖 호응얻어—강의실 꼭메운 수강열기—

- 5.20(7): 대구음악제 출품작 최우수상 입주섭
- 5.26(7): 대구작곡콩쿠르 대상에 임주섭
- 5.30(7): 계대음대 작곡과 연구발표회
- 6.12(7): 시향관현악곡 공모
- 6.20(7): 대한민국작곡상공모
- 8.30(11): 작문·작곡
- 10.14(7): 음악-맥향공간 권순호작곡발표회-
- 10.24(7): 대구MBC 창작가곡발표회
- 10.27(7): 대구MBC 창작곡 발표회
- 11.11(7): 계대음대작곡과 졸업연주회
- 11.13(7): 권순호 작곡발표회
- 11.28(7): 김정길작곡발표회
- 12.28(7): 대구MBC 창작가곡집
- 85.1.20(7): 이달중 창우회 등 3개행사
- 1.26(7): '85년에 건다-작곡가 구자만-
- 2.7(7): 모짜르트 새작품발견
- 4.13(7): 한국음악의 밤
- 9.27(7): 김창재 작곡발표회
- 10.24(7): 패기넘치는 하나작곡발표회
- 11.2(7): 창작성가발표회
- 12.5(7): 고승익가곡집
- 86.1.19(7): 대구MBC 85창작가곡집 출판
- 3.9(7): 대구시향창작곡공모
- 3.22(7): '85 4' 작곡발표회
- 3.26(7): 음악-현대음악 이해 폭넓혀-
- 4.2(7): 작곡가 권태복씨『한국의 처녀』출간
- 4.22(7): 음악-대구작곡콩쿠르 25일 본선대회-
- 5.1(7): 최은규곡 대상-제3회 대구작곡콩쿠르-
- 6.7(7): 작곡물품작품모집
- 6.11(7): 고악기 35점 일반공개
- 7.1(7): 작곡가그룹발표회
- 7.26(7): 김규환 합창곡-음반제작 참여-
- 8.14(7): 음악-우정복 예술가곡집 출간-
- 8.14(7): 음악-음협 창작곡공모 단1곡 응모-
- 9.21(7): 김정길작곡발표회
- 10.18(7): 작곡발표회
- 11.12(7):故김수원추모발표회
- 11.13(7): 창작성악곡발표회
- 11.22(7):故김진균의 가곡집『산너머 저 하늘이』출판
- 11.22(7): 제13회 작곡발표회
- 11.25(7): 작곡가발표회
- 12.3(7): 효대 작곡과 정기연주
- 12.4(7): 임우상 5년만에 가곡발표
- 12.5(7): 대한민국작곡상 결정
- 12.5(7): 뛰어난 86년-음악인 홍세영-
- 87.1.17(7): 예술가곡집
- 3.24(7): 작곡가모임 제3세대
- 3.27(7): 작곡그룹 85 4 올 첫 발표회
- 4.23(7): 음악-강문칠 여성적인 작곡발표회-
- 5.12(7): 대구작곡콩쿠르
- 8.27(7): 젊은 작곡 동인들 발표회
- 9.22(9): 임우상작곡발표회
- 11.11(7): 음악-조두남·하대용·김진균 향토작가 추모음악의 밤-
- 88.4.6(9): 음악-홍세영 곡 동해 호평 받아-
- 4.29(11): 창작회 창립 30돌 기념행사
- 5.26(15): 창작곡 발표 부책
- 6.3(9): 창작곡 발표회 활기
- 11.24(9): 창작 음악활동 점차 정착
- 89.6.16(9): 윤이상 등 16명 작품연주
- 9.1(9): 음악-귀국발표회 갖는 임우상-
- 11.9(9): 작곡발표회
- 11.18(9): 열림 작곡발표회
- 90.1.29: 겨례의 노래공모(겨례의 노래사업단)
- 2.23: 한국작곡가협회대구지부 정기총회
- 3.3: 대구작곡가협회출범(우종억)
- 4.3: 텔가도피아노독주회
- 4.14: 대구작곡콩쿠르(대구작곡가협회)
- 5.8: 대구작곡콩쿠르일정변경(대구작곡가협회)
- 5.8: 정치치작곡발표회(음악)
- 5.10: 창작계활동(대구작곡가협회: 창우회)
- 5.12: 정치치작곡발표회
- 5.25: 작곡동인 열림작품발표회
- 5.31: 창작음악의 밤(창우회)
- 6.13: 실랑스작곡발표회(동아문화센터)
- 6.19: 태평양현대음악제(김병곤: 문화초대석)
- 6.20: 패시픽현대음악제
- 7.28: 서울음악제(창작음악계)
- 9.28: 창우회작곡콩쿠르
- 11.13: 창우회9회작품발표회(조명)
- 11.23: 이인식작곡발표회(문화초대석)
- 12.3: 한국성가협회5회창작성곡발표회
- 12.6: 연주활동(창작: 음악)
- 91.3.8: 현대음악작품공모전입상(독일다름스타트현대음악교육연구소: 임주섭)

- 3.19 : MBC 창작동요제(문화방송국)
 4.2 : 창작회총회(음악화제)
 4.9 : 창작회사업계획(음악)
 5.4 : 도레미창작동요발표회(도레미동요작곡동인)
 5.11 : 영남작곡콩쿠르요강(영남작곡가협회)
 5.26 : 대구 창작음악제
 5.26 : 해외작곡과의 창작교류(창우회)
 5.28 : 효성여대작곡과춘계정기연주회
 5.30 : 창작음악활성화프로그램(창작음악축제)
 6.1 : 창음회4회작품발표회(음악)
 6.8 : 대구현대음악제(형가리현대음악실태 : 청음회)
 7.1 : 대구현대음악제(라슬러 드브로바이)
 8.9 : 神戸작곡콩쿨입상(일본고베시 : 임주섭)
 11.4 : 창작회11회작품발표회
 10.11 : 효성여대작곡과동문추계정기연주회
 10.17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영남작곡가협회)
 10.18 : 열림작품발표회(효성여대작곡과동문)
 10.21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영남작곡가협회)
 10.22 : 문화초대석(우종억 : 영남국제음악제)
 11.27 : 김창재작곡발표회
 92.1.1 : 영남작곡가협회(예술단체)
 1.1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영남작곡가협회)
 1.1 : 예술단체(영남작곡가협회)
 5.26 : 효성여대작곡과춘계정기연주회
 6.19 : 우종억작품세계(이두영 : 대구현대음악제)
 6.19 : 단농회전자음악전(대구현대음악제 : 청음회)
 6.27 : 문화초대석/권혁찬(로봇상쇠 : 대구현대음악제)
 8.14 : 존케이지타계(현대음악작곡가)
 9.3 : 향토작곡가가곡의 밤(대구성악연구회)
 9.5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춘년음악회(음악)
 10.23 : 영남국제현대음악제
 10.26 : 효성여대5인교주작곡발표회
 10.31 : 영남국제현대음악제학술세미나(영남작곡가협회)
 11.4 : 윤이상음악제(일본)
 12.1 : 창우회13회작품발표회
 93.2.3 : 부산현대음악제작품공모/2회(부산일보사)
 3.5 : 「92창작국악동요제」(교육방송 : 국립국악원)
 4.26 : 윤이상작품연주회참가(김현옥/무용)
 5.18 : 창작음악발표회(제3세대 : 이건용)
 6.3 : 제12회대구음악제(대구시)
 6.3 : 영남작곡가협회작품발표회(작곡가와와의 만남)
 6.4 : 제12회대구음악제(대구시)
 6.22 : 대구현대음악제/제3회(청음회)
 6.25 : 대구현대음악제/제3회(청음회)
 7.2 : 93대구현대음악제
 7.3 : 대구현대음악제주관/제4회(이두영/청음회회장)
 8.26 : 구주현대음악제/제4회(일본구주작곡가협회)
 9.17 : 효성여대작곡과정기연주회
 9.21 : 효성여대작곡과정기연주회(추계정기연주회)
 9.23 : 새온소리2회전자음악발표회(대구열린공간 큐)
 10.7 : 93아시아현대음악제(서울 : 대전)
 10.15 : 계명창작음악의 밤
 10.22 : 영남국제현대음악제학술세미나/제3회
 10.26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제3회(영남작곡가협회)
 10.29 : 영남국제현대음악제학술세미나/제3회(문화초대석)
 10.29 : 새온소리작곡발표회(열린공간 큐)
 11.1 : 영남대작곡가발표회
 11.18 : 전자음악동인작품발표회(오늘)
 11.19 : 전자음악동인작품발표회
 11.19 : 미래악회작곡발표회(대백예술극장)
 11.19 : 오늘작품발표회
 12.16 : 윤이상음악축제(예음)
 12.28 : 윤이상음반출판(서울음반 : 베를린필)
 94.2.5(17) : 윤이상음악축제(예음문화재단)
 5.13(14) : 새온소리전자음악발표회
 5.17(17) : 새온소리발표회
 6.3(14) : 대구음악제신인창작음악콩쿠르 및한국음악의 밤
 6.24(14) : 대구현대음악제/제4회
 6.24(19) : 대구현대음악제/제4회
 9.2(16) : 윤이상음악축제(예음문화재단)
 9.2(20) : 윤이상음악축제(윤이상/작곡가)

- | | |
|---|--|
| <p>9.9⑭ : 우종역창작곡CD출판(성음레코드)</p> <p>10.14⑭ : 창우회정기작품발표회/제15회</p> <p>10.21⑭ : 창우회정기작품발표회/제15회</p> <p>10.21⑭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제4회(영남작곡가협회)</p> <p>10.21⑭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제4회(영남작곡가협회)</p> <p>10.22⑭ : 대한민국작곡상/제13회</p> <p>10.25⑦ : 슈만악보(영국소더비경매장 : 교향곡제2번)</p> <p>10.27⑮ : 영남국제현대음악제/제4회(영남작곡가협회)</p> | <p>10.28⑭ : 신작발표회</p> <p>11.1⑮ : 창작가곡발표회/제3회(대구예술가곡회 : 테이프출반)</p> <p>11.5⑫ : 효성여대작곡과졸업연주회</p> <p>11.7⑮ : 이안삼작곡발표회</p> <p>11.11⑭ : 효대작곡과추계정기연주회</p> <p>11.18⑭ : 효성여대작곡과교수음악회</p> <p>11.26⑬ : 열림작곡발표회(효성여대작곡과)</p> <p>11.29⑰ : 창작성곡발표회/제9회</p> <p>12.12⑰ : 동학100주년기념가곡/금강공연</p> <p>95.2.14⑮ : 김유리/작곡가(새롭게된다)</p> |
|---|--|